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23일)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이태원 참사 애도와 진상규명 위한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연대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 부상자 쾌유와 진상규명 및 안전세상 발원 오체투지' 시작을 알리며 11월 9일 서울 조계사를 출발했다. 이들은 사흘 간 조계사부터 이태원역 참사 현장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체투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희생자 가족들과 많은 국민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에 몸을 눕히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희생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을 위한 공간을 촉구했다. 〈현장 기사 3면〉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 법익 증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첫 개원…조계사서 개원식

종정예하 "화합으로 소통" 당부
18대 종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전반기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 무경 외 81명은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77명의 중앙종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화합을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합을 으뜸으로 하며,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합의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며 "비록 화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도 소통 · 협의해 종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교구본사에서 원만하게 정진한 능력과 원력을 인정받은 스님과 직능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스님들의 모임"이라며 "종회의원 스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해 종단 발전의 초석을 놓길 바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종단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인 제18대 중앙종회가 개원한 것을 축하하며 종단 집행부 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반야의 지혜로 종도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주신 18대 중앙종회의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종단의 중추로 종단을 바로 세우는 입법과 종책 생산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제226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맞아 불기256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종사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교육원장 선출의 건 등을 제출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종단 집행부가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개원식 후 기념촬영 모습.

개원식을 마친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제226회 정기회를 개식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정기회는 81명의 의원 스님 중 77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갔다.이날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에는 5선 의원인 주경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주경 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정하게 의장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는 불법홍포와 종단 발전의 중차대한 책무를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있다. 의장으로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허 스님의 수선결사와 성철, 자운 스님의 봉암사 결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근현대 한국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제는 새로운 사부대중 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상월결사는 진취적이고 고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종회도 위기를 극복 · 해결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수석 · 차석부의장에는 무관 스님과 법원(직할) 스님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중앙종회 사무처장에는 17대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우봉 스님이 재선출됐다.

8개 상임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오심 스님이, 교육분과위원장에는 덕현 스님이, 포교분과위원장에는 정운 스님(비구니)이 각각 선출됐다. 재정분과위원장에는 설암 스님이, 호법분과위원장에는 재안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 개설된 문화분과위원장은 종봉 스님이 선출됐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원경 스님이 선출됐다. 〈관련 기사 2면〉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에 혜일 스님 만장일치 선출

중앙종회 정기회서…"출가 인연 확대" 소감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에 혜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9일 제226회 정기회에서 제9대 교육원장으로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신임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모자람이 많음에도 교육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승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출가의 인연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일 스님은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4 · 15 · 1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종립학교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제9대 교육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혜일 스님은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에 지우 스님을, 교육국장에 정관 스님을, 연수국장에 지만 스님을 잇달아 임명하며 인사를 단행했다.

11월 10일 교육원 인사 단행
교육부장 지우 스님 등 임명

임명장 수여 직후 혜일 스님은 "출가하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원의 임무"라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출가자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원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장 지우 스님과 교육국장 정관 스님, 연수국장 지만 스님 모두 본사 등에서 여러 종무행정을 수행하시며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교육부장 지우 스님은 법원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사미계를, 199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을 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서 석사를 수료했으며,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과 자비선사 초기불교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16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동화사 총무국장, 관오사, 보현사 주지도 역임했다.

신임 교육국장 정관 스님은 흥선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200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승가대학과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직지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상주 용흥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임 연수국장 지만 스님은 본해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계를, 201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대구 용문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11월 9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제9대 교육원장으로 선출된 혜일 스님은 10일 교육원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연수국장 지만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교육부장 지우 스님, 교육국장 정관 스님.



특집 시방세계 5면
상월결사 3주년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2022년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 안내

신청 방법
2022.11.21(월)까지
※광주 증심사 : 2022.11.11(금)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 ye_ppi@templestay.com
팩스 02-733-9928

참가비 무료

문의 02-2031-2052

안내사항
1) 사찰당 최대 3인 이내 접수 가능
2)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은 연 1회(1인 기준) 가능
3) 정원 조기 마감 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종료될 수 있음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교육 안내

학습 목표 • 사찰음식 소임자(후원)의 역할, 자세 이해 및 마음가짐 확립
• 사찰음식 소임자의 조리기술 이해 및 향상

교육시간 1박2일형 / 당일형

교육내용 • 사찰음식과 공양간 소임의 이해
• 계절별 및 의례 관련 사찰음식 등

교육 방법 • 대면 교육(당일형, 1박2일형)
• 시연 및 실습

교육 일정 하반기(11월 중순~12월 중순)

지역	장소	날짜(요일)	강사	교육형태
서울	향적세계	12/6(화)	홍승스님	당일교육
		12/12(월)	여거스님	
경기/강원	수원 봉녕사	12/8(목)	여거스님	
영남	대구 동화사	11/27(일)~11/28(월)	동희스님	1박2일 교육
		12/7(수)~12/8(목)		
호남	장성 백양사(천진암)	12/15(목)~12/16(금)	정관스님	
	구례 화엄사	12/13(화)~12/14(수)	홍승스님	
	광주 증심사(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	11/14(월)~11/15(화)	지원스님	1박2일 교육(비숙박)

2022년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찰 전통 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총림 해제 요건 완화·방장 자격 확대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서 '총림법 개정안' 결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총림 해제 요건 사유가 완화되고 방장 자격은 확대된다. 이는 현실적인 총림 운영을 반영한 것이여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9~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6회 정기회를 열고 총림법 개정안과 종단 주요 인사안,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등 26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심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지정 해제 사유를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선원·승가대학(승가대학원)·율원(율학승가대학원)·염불원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총림 방장 자격 요건으로 전문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거나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한 스님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심우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현실적인 총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총림의 구성요건 및 총림 지정의 해제 사유를 완화하려 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각(해인사) 스님은 방장 자격을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도 승가교육과 전법포교행으로 종단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총림 구성·해제 사유 완화해
방장 자격에 총무원장 등 추가
직능선출위원 계호 스님 선출
1994년 이후 첫 비구니 스님
대종사, 명사 특별전형 동의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해
'해인도 철거' 결의문 채택도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6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다수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은 선거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지만,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되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중앙종회는 방장 자격에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추가한 수정안을 표결을 붙였으나 41명이 반대해 폐기됐다.

이후 중앙종회는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출석 의원 65명 중 찬성 49명, 반대 7명으로 출석인원 2/3을 넘겨 가결됐다.

종단 주요 인사안들도 모두 처리됐다. 중앙종회는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前화엄사 주지 종열·총무부장 호산·동국대 상임이사 성월·봉은사 주지 원명·前 송광사 주지 영조·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을 선출했다. 비구니 계호 스님이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1994년 직능대표 선출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선조, 태허 스님의 임기만료와 지오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에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송학사 주지 향록 스님,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을 각각 선출했으며, 법광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심호계위원에 前 중앙종회의원 무자 스님이 선출됐다. 법규위원에는 前 해인사 포교국장 명강 스님, 흥부암 주지 범종 스님이 선출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前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소청심사위원장에는 각화사 주지 환풍 스님이, 소청심사위원에는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 연미사 주지 덕암 스님이 선출됐다. 탄원 스님과 혜일 스님의 사직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및 감사 후보에 대한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 성우 스님의 후임에는 종호·원충 스님이, 감사 원명 스님의 후임에 원명·우봉 스님, 감사 일화 스님의 후임에 도림·해량 스님이 추천됐다.

또한 총무원장이 제출한 대종사 및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법계에는 성학·성운·진관·기연·현일·종성·중하·성연·정휴·법보·효담·청안·돈명·대운·동봉·혜문·운성·지정·명신·법진·수인·영진·현전·영명·무상 스님 등 25명이 대상자로 제출됐다. 명사 법계는 진홍·지견·재호·희원·선공·도문·지우 스님이 등 7명이 대상이다.

중앙종회는 법계위원 법현 스님에 대한 위촉 동의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 등운 스님에 대한 선임 동의, 교육원장이 제출한 제12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은 814억 5089만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283억여 원으로 올해 대비 4억166여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531억여 원으로 올해 대비 45억 원이 감액됐다.

또한 중앙종회는 '천주교 해인도(법계도) 도용에 대한 사과 및 전시물 철거 촉구 결의문',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통합종단 60주년 조계종 "세상의 벗 되겠다" 다짐

11월 10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종정예하 "정법당간 세운 계기"
11월 16일까지 특별전시회도

"우리 종도들도 전국민의 교망앞에서 육화의 정신에 입각해 종단의 전통을 바로 잡고 현실 타개를 위해 이 종헌을 제정함에 이르렀다."

1962년 제정된 조계종의 종헌 선포문이 다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울려퍼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국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종단 사부대중이 화합해 모든 사람들이 찬탄하는 종단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청정하고 여법한 비구·비구니 교단으로 17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조계종단이 60년 전에 종헌의 전문(前文)과 제1조에서 제5조에 이르기까지 정화의 이념을 명시하고 도제 양성·포교·역경의 3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역사적인 일이 통합종단의 출범"이라면서 "통합종단의 출범을 계기로 간화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정법당간을 높이 세우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단 사부대중 더욱 화합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수희동참하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감동하고 찬탄하는 종단이 되도록 힘을 합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 직후 열린 특별전시회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전시 라운딩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은 조계종이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다.

"종교인구가 급감하고,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진우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당시 발원했던 정법수호와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후대에 전할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화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통합종단 60주년을 맞이해 종단이 나아갈 길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종단은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끝까지 희생자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슬픔을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를 11월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중앙기록관에서 보관 종단 주요 기록물, 영상물이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서봉 스님 임명

진우 스님, 10일 임명장 수여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서실장 서봉 스님과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서봉 스님은 교육원장으로 재임 당시 함께 종무를 해서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 사서 업무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총무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고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승려복지는 종단 스님들에게 중요한 종책"이라며 "총무부장 스님을 잘 보필하며 승려복지 종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신임 사서실장 서봉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해인총림 율원과 동국대 고고미술사학 등을 졸업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부교수, 해인총림율원 율원장,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해인사성보박물관장,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신임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은 화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사미계를, 200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0일 신임 사서실장 서봉 스님〈사진 왼쪽〉과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사노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11월 9일, 서울 조계사 출발
희생자 가족 공간마련 촉구
11월 11일 이태원역서 회향
이웃종교도 동참, 연대약속



조계종 사노위가 11월 9~11일 조계사에서 이태원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의 공간마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1월 9일 조계사를 출발해 이태원역을 향해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행진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포함해 스님 14명이 동참한 이날 오체투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 공간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진행됐다. 출발에 앞서 지몽 스님은 먼저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와 고통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에 몸을 뉘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어 정부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스님은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실감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있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염원하기도 했다. 스님은 "희생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첫 출발점일 것"이라면서 "공간에서 소통하고 나눈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조사와 진상을 국가는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이웃종교도 동참, 적극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박영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 "스님들의 오체투지를 보고 정부가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오체투지는 조계사를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마무리 됐다. 희생자 추모 및 부상자 쾌유에 그치지 않고 진상규명 · 희생자 가족 공간 마련 촉구 등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동선이다.

사노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가족 공간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존중받고 생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우크라이나 난민위해 1000만 원

11월 9일, 진우 스님 예방
"불교 본연의 역할에 모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자비정신"이라며 혜도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혜도 스님은 "최근 신문을 통해 화계사서 출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이 현지에서 난민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도들과 뜻을 모았다"면서 "마침 총무원장 스님도 명상센터 운영에 큰 뜻을 두신 만큼,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혜도 스님과 함께 배석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에게 "한마음선원은 그동안 각종 자비나눔으로 종단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스님들을 잘 보필해 앞으로도 종단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전환위한 불교 실천 과제는?

KCRP, 11월 4일 탄소중립 실천방안 토론
이철한 · 서재영 교수, 한주영 국장 등 발제

7대 종교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18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막식' 을 갖고 깨끗한 지구 만들기를 위해 화합 · 연대한 가운데, 불교계가 첫 주자로 나서 탄소중립과 전환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1월 4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by필원에서 '7개 종교 연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불교 토론회' 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생명, 생태 위기를 통해 본 불교사상과 가르침' 을 주제로 발제한 이철한 동국대 교수는 '에코 다르마(Ecodharma)' 를 강조했다. 에코다르마는 생태적인 관심에 불교 가르침과 그에 연관된 영적 전통을 결합한 것이다. 이 교수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짐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음 △모든 존재는 소중함 △모든 존재에 자비를 베품 △다음 생을 위한 터전 △모든 것은 마음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구를 남용한 탓에 심각한 생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생태위기는 불교사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 교수는 "불교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고 머물다 부서지고 사라지며 변화하며, 이 변화는 어떤 원인과 조건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중생과 자연환경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돼 있으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으로 가는 불교의 지혜, 자비의 생명윤리와 소욕지족 정신' 을 발제했다. 서재영 교수는 음식 절제를 통한 붓다와 불교 수행전통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발우공양 전통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채식 중심의 사찰음식과 탄소배출 감소 △자급자족의 수행전통과 푸드 마일리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인이 수행자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본받고 어떻게 오늘의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각자의 삶이 소박해야져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욕망은 절제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구를 가볍게 밟는 삶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도 성장을 넘어 탄소중립과 전환을 위한 불자 실천을 발제했다. '환경보살' 의 녹색생활 실천을 강조한 한 사무총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삶,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삶,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들을 생각하는 삶,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익과 코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넓게 보는 자리이타의 삶을 살기 위해 실천목록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환경보살의 기도' 를 권선하기도 했다.

발제 후에는 이제열 불교경전연구원장과 오용석 원광대 학술연구교수, 최광수 (사)에코붓다 대표가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임은호 기자

자승 스님, 윤대통령과 환담

11월 8일 오전 봉은사 찾아
원로 스님들에게 조언 구해


자승 스님은 윤대통령에 "유연함을 가져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 원로 스님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해결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대통령실은 11월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 봉은사를 방문해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원로의원 자광 · 도후 · 지명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환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께서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혜거 스님은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4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추모위령법회' 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첫 사과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다른 종교계 원로들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국민이 다시 화합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일시: 11월 1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어떤 것의 본래적 성품인 '본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은 불교와 동서양 철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본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이필원 외 /신국판양장/432쪽/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계종복지재단, 불교복지 기여자 38명 선정

조계종총무원장표창 보리 스님
국회의장 공로상에 동준 스님
복지부 장관상에 현법 스님 등
12월 6일 역사문화관서 시상식










① 총무원장 표창 보리 스님
② 총무원장 특별상 영산반야회
③ 대표이사 표창 함상원
④ 국회의장 표창 동준 스님
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현법 스님
⑥ 문체부장관 표창 김건태
⑦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종로구 가족센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 38명이 '2022년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11월 8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 사찰 등으로부터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후보를 추천받아 정부부처 추천 등을 통해 시설운영과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공자 38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표창에는 침체된 지역 불교 구심점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기여한 순천포교당 대승사 주지 보리 스님과 2005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취약계층 김장김치를 지원하며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총 14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대표이사 표창에는 복지현장에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기술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광호 관장,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서울노인영화제를 국제영화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며 주체적 노인상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문화발전에 기여한 서울노인복지센터 함상원 부장, 1983년부터 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을 시작으로 불교계 복지단체와 협력해 독거어르신·난치병 환자·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봉사와 후원을 꾸준히 이어온 사단법인 미소원 등 총 15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다.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을 건립, 장애인 자립영역 확대 및 인재를 육성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으로 장애인 인권안전망을 강화한 승가원 법인사무국 동준 스님에게 국회의장 공로장이, 존폐 위기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 용화사 주지 현법 스님 외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며 장애인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뛰어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및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공헌한 농성빛 여울채종합복지관 김건태 관장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에 이바지한 강남장애인복지관 정성운 사무국장에게 수여된다.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은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매년 외부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7년간 사회복지관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도록 일조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차진영 과장 외 2명에게 돌아갔다.

한편 '제2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2023년 청년불자 이끌 수장은 누구?

대불련 중앙회장에 유정현 씨 출마
대불청 중앙회장 선출은 연장 공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1년차 중앙회장 선거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3학년 유정현(여의행) 씨가 단독 출마했다. 〈사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최근 61년차 중앙회장에 유정현 씨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대불련 선관위는 10월 13일 선거공고에 이어 11월 4일까지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11월 5일 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유정현 씨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단독 후보자로 결정했다.

유정현 후보는 2019년 동국대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부에 입학했다. 서울 영화사 어린이법회 간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며, 유튜브 '절로TV' 출연 및 활동을 했다.

2020년 동국대 불교동아리에 입회 후 소모임 '불교유적답사회' 모임장, 총대위원회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KBUF 청년 대학생 불자 조직 리더 워크숍에도 참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청년대학생전법단 소속으로 역사문화순례에도 참가했다.

2017년에는 파라미타 우수회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한불교진흥원 1·2기 대원청년 불자상을 수상했고, 2021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두근두근 템플스테이, 우리 지역 여행코스 만들기' 장려상도 수상했다.

유정현 후보는 "대학생들에게 막연한 불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불교가 젊은 문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젊은 불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불련 61년차 회장 선거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7일 열리는 제76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32대 중앙회장을 선출키로 하고, 입후보 등록 사항을 연장공고했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제32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해 당초 예정된 11월 1일까지의 입후보 기간을 11월 13일까지 연장했다"고 전했다.

대불청 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과 함께 후보등록금 200만원과, 선관위 보시금 3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은 11월 27일 제76차 임시총회 전일 24시까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제70회 겨울지도자강습

11월 26일 단양 미륵대흥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11월 26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지금 여기 명상 ON'을 주제로 제7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회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마음근력을 강화하고, 강습회에 참가한 지도자들 간의 네크워크를 통한 사찰법회 플랫폼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레크리에이션협회장 스님의 '인성교육, 화엄놀이 카드 활용법'을 비롯해 자인공방 대표 자인 스님의 '佛 멍' 강좌, 진성철 깨비이벤트 대표의 '마음 愛 몸짓' 율동 프로그램, 다르마명상심리상담센터 강사 수인 스님의 '싱잉볼 체험', 대흥사 자연명상, 이수민 신나는공예세상 대표의 '교리가 있는 체험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30명 모집이다. **노덕현 기자**

"한결같은 후원 감사합니다"

조계종복지재단, 11월 10일
장기 후원자 20명에 감사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수년 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사진〉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고액후원자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감사장을 받은 고액후원자는 총 20명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3명의 후원자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은 최근 3년 이상 정기후원자 중 누적금액이 가장 많은 후원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후원자 20명의 누적 후원금은 약 3억 6000만 원이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류미아 후원자는 14년 10개월째 후원을 이어왔다. 류미아 후원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식구라는 생각으로 큰 부담이 가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보시한 것 뿐"이라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만큼 좀 더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년 4개월을 후원한 최아현 후원자도 "후원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이 흘렀다니 스스로도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성희 후원자는 "조계종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을 갖고 후원하는 만큼, 의미있는 일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웃으며 말했다.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개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히 큰 금액을 후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금액의 크고 작음을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재단의 큰 기둥이 돼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은 자비나눔 무료급식,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후원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사업을 통해 부처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면서 "계속 기억해주고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무처장 해공 스님도 "꾸준히 한 기관에 후원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후원자들 보시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28회 불교인권상에 이하라 히로미츠

선감학원 사건 증언활동 등
진상규명 활동 적극 이어와



불교인권위원회가 '제28회 불교인권상'에 '선감학원'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 활동가인 이하라 히로미츠를 선정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설립·운영된 소년강제노동수용 시설이다. 해방 이후 경기도로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국가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140명 이상이 암살됐다는 증언에 근거, 시범 발굴 5일 만에 5구의 유해를 찾아냈다.

제28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하라 히로미츠(井原 宏光)는 1943년, 소학교 2학년 때부터 선감학원에서 학대당하며 죽어가는 조선소년들을 목격했다. 자신이 목격한 선감학원에서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자전적 소설「아! 선감도」를 1991년 발간, 일본전역에서 강연을 통한 증언활동을 해왔다.

1996년 억울하게 죽어간 선감학원 수용생을 위한 위령제를 주민들과 함께 최초로 선감묘지에서 지냈다. 2014년 시민, 작가들의 물자기부, 재능기부를 통하여 선감학원 터에 위령비를 세웠고 이어 한국당국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불교인권상 시상식은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32주년인 11월 20일에 열린다.

임은호 기자



霜月結社 3주년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한국불교 리모델링 대장정
수천km 한발 한발 걸으며
‘움직이고 찾아가는 불교’
자승 스님 필두 승속 한마음
대중 원력, 천년 미래 밝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9년 11월 11일 엄동설한 속 위례신도시 청량산 자락에 천막이 설치됐다. 한국불교 대변혁의 시작을 알린 아홉 스님의 90일간 용맹정진. 상월결사의 시작이었다. 천막법당 무문관정진 90일간, 한국불교 변화의 화두가 던져졌다.

상월결사가 시작한지 3년간 한국불교는 ‘불교중흥’ ‘국난극복’ ‘세계평화’의 원력으로 하나가 됐다. 이는 상월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이라는 중심이 있기에 가능했다.

천막정진 후 자비순례를 앞둔 2020년 7월 28일,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침체된 불교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원력에 따라 순례단은 한걸음 한걸음 발을 내딛었고, 도합 1000km가 넘는 길을 걸었다.

원력 불교를 다시 세우자

상월결사에는 불자들의 원력이 모인 장이었다. 가장 큰 원력은 바로 ‘불교중흥’이다. 회주 자승 스님은 “우리 각자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불자로서의 자각과 매순간 치열한 정진이 바로 불교중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였다.

이 원력은 3년간 천막정진과 순례서 그대로 나타났다. ‘결사’라는 무거운 단어가 있었지만, 행동은 무겁지만은 않았다. 천막정진 기간 사부대중은 아홉 스님을 외호하며 절과 기도를 하고 음성공양을 올렸다. 정(靜)을 바탕으로 했지만, 동(動)도 함께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진 상월결사 자비순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진행됐다. 대구 동화사부터 서울 봉은사까지의 511km에 달하는 지원단을 포함한 108명의 순례단이 ‘불교중흥 · 국난극복’ 하에 똘똘 뭉쳤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8일 진행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는 ‘불 · 법 · 승’ 삼보에 대한 신심의 발로였다. 108명의 순례단은 423km를 걸었다. 지리산을 넘는 대장정은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어 2022년 3월 23일 해남 대흥사를 시작으로 월정사, 백양사, 법주사, 은해사, 화엄사 등에서 이어진 평화방생순례는 마음의 평화가 곧 우리 사회의 평화라는 원력으로 진행됐다.

평등 사부대중은 평등하다

상월결사의 특징은 스님들부터 솔선수범, 대중을 함께 이끈다는 점이었다. 길 위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기간 너나 할 것 없이 동등한 정진대중이 됐다. 1호 텐트는 회주 자승 스님의 정진자리였다. 회주 자승 스님부터 대중과 함께 정진하는 모습은 귀감이 됐다.

많은 이들은 상월결사에 대해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의 변화”라고 평가한다.

상월결사의 방향은 ‘찾아가는 불교’로 평가할 수 있다. 상월결사는 자비순례와 천리순례, 평화방생순례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행선 모든 순간이 수행 그 자체

상월결사는 앉아서 참구하는 선수행에서 행선이라는 새로운 수행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건강을 위한 트래킹 등 현대문화와 걷기명상 등 불교와 연관된 명상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선(禪)이 아님이 없다는 것을 상월결사 대중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평화방생순례는 각 사찰마다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순례문화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순례마다 한국불교 곳곳의 현안을 살피고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월결사는 한국불교의 대전환을 알린 결사이자, 미래 불교로의 새로운 비전 제시다. 이태원 참사 추모의 성격을 더해 열리는 상월결사 3주년 기념식이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변화의 화두를 던지기를 기대해본다.



화엄의 세계,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11월 24일~12월 22일, 설법전

종정 성파 대종사 입재 법문
법성게 및 천도재 기도 이어
〈화엄경〉 강설 릴레이 법문
100년만의 불사 문수전 상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매년 음력 11월 한 달 동안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화엄경〉 강설 릴레이 법회로 정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화엄산림법회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이후 오후 6시 30분에 법성게 기도를 진행해 정진을 이어가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상단불공 후 천도재를 봉행한다.

화엄산림법회 기간에는 전국의 불자들이 영가 위패를 설법전에 함께 봉안하고 〈화엄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회향일에는 법회 기간 동안 봉안한 영가 위패를 소각하는 의식으로 회향한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화엄산림대법회 모습.

입재식은 11월 24일 오전11시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한다. 성파 대종사의 화엄산림법문은 입재일과 회향일 두 차례 있을 예정이다.

화엄산림법회 법사는 선·교·율을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前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前 통도사 강주 각성 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용학 스님, 前 조계종 교육아사리 신경 스님, 前 화엄사 강주 종곡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해인사 율주 경성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前 해인사 강주 원철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동명대 석좌교수 수진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 대구 보현사 주지 자광 스님, 前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前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만초 스님,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 조계종원로의원 보선 스님, 前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창녕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前 쌍계사 강주 반산 스님이다.

법회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되며 일요일은 오전 10시 20분에 시작된다. 11월 4일과 12월 18일에는 월하 스님과 벽안 스님 추모다례로 진행된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동참금은 영가 1위당 2만 원이며 생축 1인 10만 원이다. 문의 및 접수는 통도사 기도접수처(화엄전)로 하면 된다.

한편, 통도사는 11월 8일 경내 문수전 불사현장에서 문수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문수전은 기존 전향각 자리에 건립될 예정이며 규모는 3만 4000㎡부지에 건축면적 8200㎡, 지상 1층, 3칸 겹집구조이다. 문수전은 통도사 경내 100년 만에 처음 있는 불사로 통도사 문수전에 대한 사적 기록을 발견해 건립하게 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 경내에 문수전이 없어 의아해했었다. 이 자리에 문수전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게 됐고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문수전 불사로 불보살을 모신 법당을 모두 여법하게 갖추게 돼 의미가 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원하는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개최

11월 6일, 기장정관중앙공원서
기장차문화 홍보·도예문화 계승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한·중·일 국제 교류와 차문화 보급을 통한 전통문화 살리기에 나섰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6일 기장정관중앙공원에서 '제9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보혜 스님을 비롯해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 정종복 기장군수, 허충순 부산차인협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의 최경철(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허황후 헌다례, 부산시장 표창, 축사 및 격려사, 동행문화상 시상, 한·중·일 무대차(茶)시연, 전국 아름다운 찻자리 대회 시상식, 6대 다류 찻자리 등이 이어졌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6일 기장정관중앙공원에서 '제9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허황후에게 차를 올리는 모습.

특히 이사장 보혜 스님은 허황후 헌다례를 통해 부산 기장이 가야문화권임을 강조하며 "허황후 헌다례를 주관하는 일은 가야의 역사를 깨우는 일"이라며 "부산과 금관가야와의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는 유물이 기장군 철마면에서 나와 허황후 헌다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시상식에서 정여 스님, 허충순 명예회장에게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김영희 차인지 편집주간에게 허황옥 차인대상을 전달했다. 이어 김수로 문화대상과 차성문학대상, 시의회의장 감사장, 국회의원 표창, 동행공로상 등을 차인 및 문학인에게 전달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했다.

보혜 스님은 "50인의 찻자리 대회가 펼쳐지고 노고에 감사하는 시상도 많아져 축제가 더욱 풍요롭고 그 속에 회원들의 노고와 정이 더욱 따스하게 익어간다"며 "차문화 향연의 장에서 차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행복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사장 정여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로 풍요로움과 깊이가 더해져 축제의 격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것 같아 문화동행의 의미가 더해진다"며 "기장차문화를 알리고 차문화와 연계되는 도예문화를 전승,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안사, 제6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

11월 4일~13일, 장안사 일대



부산 기장군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무관)가 11월 4일 '제6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국화 향기 품은 행복 기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주최로 11월 13일까지 10일간 장안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도시화훼학교 및 기장군 국화동호회가 출품한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됐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을국화분재 체험교실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체험교실에는 참가신청을 한 80개 팀 260명이 함께했다.

개막식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특별 축하행사를 생략했으며, 전시회에는 주지 무관 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의장 등 관계자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주지 무관 스님은 "기장군민들과 함께 도량을 국화 향기로 장엄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 천년고찰 장안사에서 멋진 작품을 감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꽃도 함께 활짝 피시길 바란다"며 "장안사는 지역민의 염원인 환경수호의 뜻에 함께하고 청정수행도량으로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051)709-5313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파라미타,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1월 6일, 창립 26주년 기념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11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총장 눌은 스님,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명예회장, 이수길 해동고등학교장, 최낙현 해동중학교장, 박명규 금정중학교장, 현익채 前 금정중학교장이 참석했으며, 해동중학교 해동쇼콰티어, 해동고등학교 하모니아, 대인고등학교 대인코너스톤, 금정중학교 금정쇼콰이어, 범어사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 팀이 경연했다.

경연 결과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300만 원)은 대인고등학교 대인코너스톤이 수상했으며, 금상(부산시장상, 상금 200만 원)은 해동중학교 해동쇼콰티어, 은상(부산시의회의장상, 상금 150만 원)은 범어사 소년소녀합창단, 동상(부산시교육감상, 상금 100만 원)은 금정중학교 금정쇼콰이어와 해동고등학교 하모니아가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재가동안거 수행입재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11월 4일 혜원정사 대웅보전에서 '임인년 재가 동안거 수행 입재 및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위령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안거마다 재가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재가 동안거는 11월 4일 입재식 후 11월 8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총 60일간의 수행 정진을 이어간다. 수행기간 동안 동참자들은 법정 스님이 옮긴 〈법구경〉을 1일 1구절 사경하고 '오늘의 수행일지'를 작성한다.

재가 동안거 수행에는 혜원정사, 안국선원, 대광명사 등 11곳 회원사찰 불자들과 개인 참여를 희망한 재가자 등 800여 명이 동참한다.



입재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이태원참사 추모,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천 평안사 창건 20주년 개산대재 봉행

"회주스님 말씀 화두로 정진, 지역 밝히는 도량 될 것"

11월 5일, 평안사 대웅전서
장학금 모금 위한 바자회도
마가스님 등 사부대중 참석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사천 지역에서 전법 · 포교에 매진 중인 평안사(주지 지현)가 창건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천 평안사는 11월 5일 대웅전에서 20주년 개산대재와 장학금 모금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청련암 주지 원명 스님 등 지역 사찰 스님들과 안정임 평안사 신도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옥천사 옥샘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1부 개산법회, 2부 장학금 조성 바자회 등으로 진행됐다.



사천 평안사는 11월 5일 대웅전에서 20주년 개산대재와 장학금 모금 바자회를 개최했다.

평안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회주 보선 스님의 말씀을 화두로 삼고 정진하고 있다"면서 "보선 스님이 창건한 평안사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초청 법사로 법상에 오른 마가 스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뒤 법문을 진행했다. 특히 마가 스님은 절에 다니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사찰을 하나 일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회주 보선 스님의 원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사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상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설했다.

안정임 신도회장은 "창건 20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회주 보선 스님의 가르침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우리 평안사 신도들은 분별없는 마음으로 스님들을 외호하고 지역 불교 발전에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안사는 2002년 12월 3일 창건주 보선 스님이 지역 전법 · 포교 원력으로 개산했다.

창건 직후부터 평안사는 승가원 휠체어 제작비 지원, 산청초교 장학금 지원, 육군 논산훈련소 군법당 신축 불사금 보시, 진주 총림사 유치원 설립 보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2018년 현재 주지인 지현 스님이 부임하며 평안사를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 말사로 등록하는 등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는 평안사 장학회를 설립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북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무료국수 나눔

한문화국제협회 공동으로 진행
내년부터 매주 1회 진행 예정

이웃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설립된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복지관(관장 김경은, 이하 붓다복지관)'과 한문화국제협회(이사장 김관수)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이 11월 9일 복지관 옆 마당에서 진행한 국수 나눔 봉사활동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 첫날인 이날 국수 나눔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익산 태봉사 법진 스님, 이재현 나누우리 봉사단장, 탑밴드 봉사단, 한문화국제협회 봉사단이 동참했으며, 인근 직장인,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복지관에서 제공한 국수로 점심식사를 했다.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은 11월 9일 복지관 옆 마당에서 무료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직장 동료들과 복지관을 찾은 한 직장인은 "물가가 너무 올라 점심식사 비용도 큰 부담이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국수 나눔을 한다고 해서 동료들과 함께 찾았다"며 "맛도 좋고 봉사자들도 친절해 부담 없이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둔 붓다복지관과 한문화국제협회는 11월과 12월에 격주로 무료국수, 동지팥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주 1회 무료 국수 나눔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붓다복지관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시민을 위로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무료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열게됐다" 며 "붓다복지관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시민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붓다복지관이 주최하고 나누우리 봉사단, 탑밴드 봉사단, 한문화국제협회 봉사단, (사)장엄, 마이산 탑사, 태고종 전북종무원, (사)재백, 전북문화관광연구소의 후원과 한문화국제협회주관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지사장

울산불교종단사암聯,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반야심경 봉독 극락왕생 기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행렬이 전국 사찰에서 이어지고 있다. 참사 희생자 3명이 발생한 울산지역을 대표해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은 11월 3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번 추모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백양사 주지)을 비롯해 정관암 대활 스님, 정광사 화산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도솔암 덕송 스님, 한마음선원 혜자 스님, 신흥사 종현 스님, 덕원사 덕원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이병호 신도회장,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임원진, 울산조계종연합회 임원진, 울산불교신도회 임원진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중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회장 산옹 스님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울산신도회 회장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보은사, 카티나 법회 봉행



스리랑카 불자 200여 명 참여
스리랑카 전통의식 카티나법회
안거 마친 스님들께 가사 공양

송광사 광주포교당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11월 6일 대웅전에서 카티나법회를 봉행했다.

카티나법회란 스리랑카의 전통의식으로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남방불교 최대 전통축제 가운데 하나이다.

보은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과 법회를 활발히 진행하는 곳으로, 이날 법회에는 스리랑카 불자 200여 명이 참여해 스리랑카스님을 비롯한 11명의 스님에게 가사를 올리고, 고국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보은사 수담마 스님, 마하비하라 주지 까디 스님, 완키사 스님, 싸르나 스님, 광주 무각사 티싸, 반냐 스님, 인다키띠 스님, 캄보디아 파야사라, 쏘타단 스님, 보은사 강덕 스님 등 전국에서 온 스리랑카, 캄보디아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은사 후원회장 정일영, 신도회장 최창인 등과 스리랑카 근로자 등이 참여해 고국의 불교명절을 함께했다.

라훌라 스님의 통역으로 진행한 행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후 인사말, 축사, 음성공양(목련합창단),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기도, 가사공양, 스리랑카 법문, 공양금 전달식,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수담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와주신 스님들과 근로자, 이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먼 타국에 와 있지만 늘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지내길 기원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고3 수험생 선물전달



고득점 합격 기원 초콜릿 전달
정광高 3학년생 350명에 선물
이사장 덕문스님 직접 교실방문

불교종립 정광학원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다.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수능시험을 앞둔 11월 9일 정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 350명에게 수능시험 고득점을 기원하고 합격진학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초콜릿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덕문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국장스님들은 3학년 교실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학교생활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3년간의 학교생활 중 1학년 때에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친구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2학년과 3학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런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하는 이사장 덕문 스님과 학교 측은 선물과 정성을 들인 마음으로 시험을 앞둔 아이들을 격려했다.

덕문 스님은 3학년 교실을 일일이 돌며 "수능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니다. 각자의 길이 다 있으니 두려워 말고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학원은 매년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전달했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광주지역 유일의 종립학교로, 만암 스님이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와 함께 지난 1946년 개교했다. 현재 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지역 사학명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담 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고성 옥천사, 9일 경상국립대서
청담사상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
대종사 모교서 첫 다례재 '눈길'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이끈 청담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재가 열렸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와 청담사상연구소,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는 11월 9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청담 대종사 동상 앞에서 '청담 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경상국립대는 청담 대종사의 모교로, 모교에서 다례재가 봉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례재에는 청담 대종사 직계 상좌 정혜 스님과 손상좌인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도감 종석 스님, 약사정사 진여 스님, 청련암 원명 스님, 동국대 박사과정 도경 스님, 허익구 청담사상연구소 명예소장, 김규범 교수, 김용진 경상국립대 교수불자회장, 강인식 진주불교청년회장, 배설화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청담 대종사는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셨으며, 국립경상대학과 진주시를 빛낸 최고의 선지식"이라며 "대종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기념관 건립 등 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불자 양성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다례재는 마가 스님의 헌향과 직계 상좌인 정혜 스님 등의 헌다, 허익구 명예소장의 행장 소개, 배설화 회장의 헌시 '마음의 노래'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앞서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는 청담 대종사의 동상과 시비를 청소했다.

한편, 청담 대종사는 경상국립대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를 1925년에 졸업했으며, 1926년 고성 옥천사로 출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삼봉사 이태원 참사 추모 49재 입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삼봉사(회주 녹원)는 11월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 49재 초재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초재에는 회주 녹원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삼봉사는 녹원 스님의 집전으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영가를 위로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녹원 스님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토세계는 공업의 인과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번 49재를 통해 불교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한편, 삼봉사는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49재를 지내며, 7재인 12월 16일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절에 가면 장애인도 참배 문제 없어요”

장애인도 가기 좋은 절 어딜까?

사회 구조가 장애인편의 증진법 법률 제정,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로 바뀜에 따라 사찰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의 인식에서 사찰은 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크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무한 것으로 인식돼 장애인의 불교 접근성을 막고 있다. 많은 사찰들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장애인이 전통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법당 참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많음에도 홍보가 돼 있지 않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계, 사회복지계,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 포교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리수아래는 2022년 2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애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편의시설 답사 및 조사요원 1~3명이 팀을 구성, 전국 사찰 88곳을 방문조사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찰을 방문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찰의 편의시설을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적인 기준보다는 실제로 느끼는 체감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장애인도 가기 좋은 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등 이동 편의시설이 돼 있어 둘러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찰이 있다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장애 불자에게는 이동의 편의와 더불어 대웅전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부처님께 삼배의 인사를 드릴 전각이 하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턱이 없는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 전각마다 도움이 필요 시 도움을 청할 전화번호안내표지가 있는 서울 봉은사, 부산 홍법사, 고양 금륜사, 김포 연운사 등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사찰의 좋은 예이다.

국보나 보물, 지방의 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것들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사찰은 법당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를 둬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에는 법당 뒤편으로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무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국보나 보물, 지방의 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시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기에 더 반가운 일이다. **합천 해인사**의 대적광전과 관음전은 붙박이 경사로를 설치, 사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체장애인도 쉽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사찰 일부는 대부분 경내가 흙마당으로 점자나 유도블록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조계사**는 경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촉지도와 유도블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다. **서울 봉은사**의 경우, 설치가 힘든 대신 일주문에서부터 각 전각, 이동경로 등 20여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도움벨을 부착, 장애인의 사찰 이용 편의를 살피고 있다. 전화는 경비실과 종무소로 연결되며 호출 즉시 상근자가 대면해 도우미 역할을 하는 형태다. 종무소의 경우 장애인 전담은 아니지만 총무봉사연등 봉사자 15명이 교대로 상근하며 호출에 대한 안내를 돕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찰도 눈길을 끈다. **서울 상도선원**은 큰법당 앞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고 수원 수원사는 법당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부속건물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속리산 법주사** 템플스테이관의 엘리베이터형 장애인리프트도 여러 곳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사찰 입구에 설치,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경주 황룡사지** 기념관은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이 있어 장애인 화장실로 가는 전용리프트를 설치해 눈길을 끈다.

지상 3층과 지하 1층 구조인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은 엘리베이터가 전 층에 있고 어느 곳에도 턱이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법당에 자유로이 들어가 참배도 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구조다.

부산 홍법사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원형법당에 모셨다. 원형법당은 현대식 건물인 만큼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다. 외부에는 원형법당 둘레 여러 갈래에서 경사로가 나 있고 대웅보전도 턱이 거의 없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 참배하기 편하게 돼있다. 아미타대불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다.

‘사찰서 불편’은 선입견일 뿐
대부분 사찰에 경사로 설치돼
문화재법 맞추어 간이 설치도

엘리베이터 · 유도블록 · 무턱
현대식 사찰은 ‘無장애 사찰’
장애인 편의시설 잘 갖추어져

고양 금륜사는 외부에서 1층 법당으로 들어오는 경사로와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출입구 쪽 낮은 턱과 홈이 있는 부분은 이동식 간이철판 받침대를 만들어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각 사찰에 시설이 잘 갖춰진 만큼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불자장애인들의 신행활동 지원과 포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 직지사 만세루로 향하는 길. 경사로 덕분에 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도 이동이 편리하다.


휠체어 이동 경로가 표시된 통도사 경내.


황룡사지 기념관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해인사 대적광전에 마련된 경사로.



점자안내판과 블록이 설치된 서울 조계사.


법주사 템플스테이관의 엘리베이터형 리프트.


턱이 없는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


서울 화계사 삼성각으로 향하는 계단 손잡이.


대구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앞 엘리베이터.

불교 디자인 현수막 및 각종 불교 용품 판매

원하시는 크기,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장주 (8m 100개 포장)





2023 불교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723-4303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11/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정스님이세상에남긴맑고향기로운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2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	운주사
3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자애:성냄과여러위험에서자신과타인을보호하는법(법의향기다섯)	일창 담마간다 편역	불방일
7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지은경 지음	레시피팩토리
8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9	스님의그림자:상담하는비구니의자기치유이야기	효록	운주사
10	눈으로듣고귀로읽는붓다의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뇌과학,불교를만나다)	김성철 지음	참글세상

책세상

"내 안의 독 제거하면 여래장 만나"



여래장사상의 원전
이평래 역주 강설
민족사 펴냄
24,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마음이 삶을 창조한다고 가르친다. 무신론인 불교는 신을 찾지 않는다. 오로지 나의 마음을 찾을 뿐이다. 삶의 주체가 마음이고 깨달음의 주체가 마음이라는 것이다. 곧 삶과 깨달음, 그리고 나와 마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본성을 주제로 한 경전이 여래장 3부경(〈여래장경〉 〈부증불감경〉 〈승만경〉)이다.

여래장 사상은 인간은 본래 마음속에 여래가 될 가능성인 여래장(如來藏),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여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론에서처럼 마음 작용에 관한 이론의 다양한 전개보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제일 중시하고 있다. 마음이 진여이고 여래장이며 그 사상을 건립하는 것이 여래장 3부경의 핵심사상이며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여래장경〉은 불교사에서 최초로 여래장이라는 용어를 창안해 부처님 가르침을 선창한 경전이다.

〈여래장경〉은 모든 중생이 번뇌 속에 뒤덮여 있지만 여래장을 갖고 있으므로 영원히 더럽게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껍질이 씌워져 있는 곡물이나 쓰레기더미에 파묻힌 진금(眞金)에 비유하며 번뇌의 누더기를 벗으면 깨끗한 여래장이 나온다고 말한다.

〈여래장경〉은 세존께서 성도하신 10년 뒤, 세존을 모시고 영취산에서 법회를 시작하는 광경으로 시작된다. 금강혜 보살이 묻고 세존이 여래장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세존은 많은 보살과 대중에게 상서로운 기적을 시현하는 데 바로 이것이다. 연꽃의 꽃잎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불(化佛)이 앉아계시는데, 연꽃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지만, 화불은 변함없이 그대로 앉아계시는 기적을 보여 그것을 증명하였다. 모든 사람의 안에는 법성 · 법계인 여래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관계없이 상주불변이라고 하였다.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은 한자로 불과 3,000자를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소부(小部)의 경전이지만, 여래장 사상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여래장경〉이 단순하게 중생의 성불의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여래장' 이라고 부른 것이라면 〈부증불감경〉은 여래장의 성질이나 번뇌와의 관계 등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교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부증불감경〉은

마음본성 주제 경전, 여래장 3부경
마음에 불성 있고 마음이 곧 깨달음
모든 중생들 마음엔 '여래장'이 있다

여래장을 매개로 하여 중생과 법신을 일치시키고 있다. 미혹한 중생과 깨달음의 법신은 둘 다 함께 여래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법신의 자리에 서든 중생의 자리에 서든 어느 쪽이든 둘 다 함께 평등이라고 말한다. 중생 성불의 가능성을 마음속의 여래장에서 구하며 더 나아가 그 발현을 연설하고 그것을 근거로 중생 · 보살 · 여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래장경보다 상당히 진보한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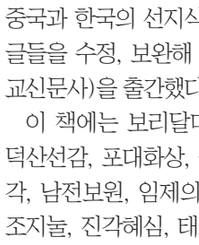
〈승만경〉의 원제목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이다.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사자후로 최고의 진리인 일승 대방편의 가르침을 널리 펼친 경전, 여래장 사상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한 여래장 3부경 중 으뜸 경전이다.

〈유마힐소설경〉이 청신사인 위말라끼르띠 거사가 진리를 진술한 것이라면, 이 경전은 청신녀인 슈리말라 왕비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진리를 진술한 것이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인도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데, 2600년 전 인도에서 재가 여성 불자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진리를 설했다는 것부터 대단히 혁신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슈리말라 왕비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먼저 10가지 서원을 세우고, 또 이 10가지 발원을 3대원으로 함축하여 실천할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는 것 또한 〈승만경〉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여래장을 갖추고 있으니 실천을 통해 여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역주 · 강설자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오뉴월 떫은 땡감이 익어서 동지섣달 아주 단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홍시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 전식득지(轉識得智, 분별심에서 반야지혜로)까지의 과정은 같은 길을 걷습니다. 땡감의 떫은맛이 제거되면 그냥 그대로 100% 아주 단 홍시가 되듯, 범부가 마음을 닦아 3독을 제거하면 그냥 그대로 해탈자라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한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다.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위로받기 위해 신(神)이나 불보살(佛菩薩)에게 의지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기도 한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 경전 특히 여래장 3부 경전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래장, 즉 깨달음을 얻어 여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 바탕, 가능성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알아차리지 못할 뿐 이미 깨달은 존재라는 것이다. 일체중생은 여래(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깨달은 이가 될 수 있는 바탕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학설로, 2천 년 불교 사상사의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삶을 창조한다고 한다. 이 책은 내 마음의 여래장을 만나고 싶은 사람,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열반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죽음을철학하는 시간
이일야 지음
불교신문사 펴냄
1만6천원

선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선사들이 남긴 열반송(涅槃頌)을 접하게 된다. 열반송은 '죽음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삶을 마감하면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언어인 셈이다. 그 속에는 한 인물의 전체 삶이 압축되어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가 열반송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모두가 수긍하는 완벽한 정답은 없겠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나만의 답은 찾을 수 있다. 자신만의 답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질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주체적인 삶을 펼칠 수 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1년 한해 동안 〈불교신문〉에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을 연재한 이일야 전북불교대학장이 중국과 한국의 선지식들의 삶과 열반송을 분석한 글들을 수정, 보완해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불교신문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보리달마, 육조혜능 선사를 비롯해 덕산선감, 포대화상, 원오극근, 대혜종고, 굉지정각, 남전보원, 임제의현, 동산양개, 대각의천, 보조지눌, 진각혜심, 태고보우, 경허성우, 효봉학눌 등 30명의 한국과 중국 선지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일화와 해설을 담고 있다.

저자 이일야씨는 불교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산속 토굴에서 수행 중인 80살 넘은 어느 스님은 신문을 보고 직접 전화를 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일야 선생을 통해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해 주었다"고 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느 수인도 편지를 보내왔다. "이 글을 읽고 수감 생활 하는 동안 불교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저자는 '선사들은 왜 그리도 멋지게 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모두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삶을 멋지게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지식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당신은 그들처럼 갈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 책을 부제목에 달린 '죽음 명상' 이라는 글귀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 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저자는 삶을 멋지게 마감하는 죽음과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고 설파한다. 이 책에 소개된 선사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잘 사는 길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서 잘못했을 때는 참회와 발원을 하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닮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대혜종고 선사처럼 열반송도 집착이라 생각해서 게송을 남기지 않은 부분도 다루며 "대혜종고 선사는 비록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게송을 남겼지만, 열반송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느냐는 일갈을 하였다. 요즘말로 쿨하게 고요 속으로 떠나고자 했던 것" 이라고 분석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어쩌면 하나라도 더 남겨야 한다는 우리 중생들의 욕심을 경책한 점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 이일야 씨는 "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열반송, 한 인물 전체 삶이 압축돼 있어
중국과 한국 선지식 열반송 분석해 묶어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도 붓다처럼 선서(善逝), 그러니까 참으로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책을 쓴 이일야 씨의 본명은 이창구이며, 일야(一也)는 법명이자 필명이다.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 박사과정을 마쳤다. 전북대와 전주교육대, 송광사승가대학 등에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등을 강의했으며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과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와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2020 세종도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안다는 것, 산다는 것〉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불교학의 해석과 실천〉 (공저) 등이 있고, 〈Hegel의 중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나옹선의 실천체계〉 〈진심과 오수의 구조〉 〈조선 중기 보조선의 영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불교의 외연을 넓혀 이를 종교학이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홍보부장 원명 /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 부산부장 혜성 /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 경기부장 자운 /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 전남부장 혜명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포교국장 청운 /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 통영국장 덕인 /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림 /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 봉화국장 혜정 /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미타도량 은해사 역사·사람·공간 한눈에

국립대구박물관 · 은해사 특별전
'영남의 명찰순례 II : 팔공산 은해사'
국립대구박물관 2023년 2월 19일까지

은해사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공간 조명
은해사괘불·문화재·문헌자료 등 363점
십대제자·십육나한상 등 30점 최초 공개
전시 주제 이해 돕는 다채로운 영상 마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은해사 아미타 삼존도

국립대구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용준)이 은해사와 공동으로 11월 8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특별전 '영남의 명찰순례 Ⅱ : 팔공산 은해사'를 개최한다.

은해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천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사찰로 인종의 태실수호사찰이자 아미타불을 모신 미타도량이다. 은해사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공간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은해사 괘불(보물)'과 아미타삼존도 등 은해사 소장 문화재와 각종 문헌자료 363점을 선보인다. 특히 거조사 석조오백나한상 526위 중 십대제자, 십육나한 등 30점이 처음으로 박물관에 전시된다. 거조사 나한상은 2023년 1월 1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제1부 야단법석을 아십니까 △제2부 시작하고 연을 맺다 △제3부 만나고 모이다 △제4부 은해사를 이루다△제5부 수행하고 염원하다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부 '야단법석을 아십니까'는 전시의 도입부로서, 은해사 괘불이 관람객을 맞는다. 괘불은 야외의식에 모셨던 대형불화로 부처의 강림을 상징한다. 중앙홀에 걸린 괘불과 미디어타워의 연출 영상은 전시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관람객이 '팔공산 은해사' 경내로 들어왔음을 알려준다.

△제2부 '시작하고 연을 맺다'는 은해사의 창건 때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은해사의 옛 흔적을 찾아서 고려시대 묘지명부터 근대에 기록된 사적기까지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다음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맺었던 인연으로 왕실과 본산으로서의 인연을 살펴본다.

△제3부 '만나고 모이다'는 은해사에서 만나고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본다. 조선시대 은해사는 선비들에게 유람의 명소이자 여러 목적으로 방문했던 장소였다.

이 과정에서 시, 유산기(遊山記) 등 각종 기록을 남겼으며, 편액을 쓰기도 했다. 또한 염원을 갖고 시주한 사람들과 은해사에서 수행한 사람들, 승려장인까지, 은해사와 인연을 맺었던 대중을 조명한다.

△제4부 '수행하고 염원하다'는 은해사의 수행과 신앙을 조명한다. '거조사 석조오백나한상'은 우리와 닮은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한 보조 지눌(1158~1210), 조선 후기 승려장인 퇴운 신겸이 필사한 경전 등을 통해서 수행처로서의 은해사를 돌아본다.

전시의 마지막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산해중심' 현판을 만나게 된다. 현판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라는 뜻처럼 팔공산 속 자연과 어우러지는 은해사의 공간을 함축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꽃과 부처(미디어타워 실감콘텐츠), 은해사를 이루는 소리, 삼라만상, 염불은 극락에 이르는 지름길, 두 부처의 만남 등 다채로운 영상을 공개한다.

은해사는 통일신라시대 809년(허덕왕 1)에 혜철국사가 해안사로 창건했다. 1270년(원종 11)에 홍진국사가 중창했고, 1275년(충렬왕 1)에는 원참이 중건했으며, 1485년(성종 16)에는 죽청과 의찬이 묘봉암을 중창했다.

1545년 인종 원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 사찰이 전소됐으며, 이듬해 1546년 명종 원년에 나라에서 하사한 보조금으로 천교화상이 지금의 장소로 법당을 옮겨 새로 절을 지었다.

이 때 법당과 비석을 조성하여 인종의 태실을 봉하고 '은해사'로 개명했다. 1563년 화재로 도량이 소실되고 이듬해에 묘진 스님이 중건했으며, 1589년 선조 22년에 법영대사가 현재의 자리에 크게 법당을 중창하고 사찰의 규모를 확장하는 일대 불사를 이루었다. 현재 은해사에는 39곳의 말사, 5곳의 포교당, 8곳의 부속암자가 있다.

은해사는 불사를 거듭하면서 여러 고승을 배출했다. 신라시대에는 우리나라 불교의 새 장을 열였던 화쟁국사 원효스님과 해동 화엄종의 초조인 의상 스님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현재 조계종의 종조인 불일 보조국사 지눌 스님,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 스님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홍진국사가 머문 뒤부터 선교양종의 총본산으로 사격이 고양되었고 화엄학의 대강백인 영파 성규 스님이 이곳을 중창한 뒤로는 화엄교학의 본산으로서 그 명성이 높았다. 최근에도 향곡, 운봉, 성철 스님 등 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

이번 특별전 '팔공산 은해사'는 관람객들에게 은해사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휴식처와 같은 공간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053)768-6051~2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희망의 노래

도솔선원 무디따합창단 찬불가 신곡발표회
12월 3일 오후 6시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무디따' 등 신곡 17곡 전곡 함현스님 작사


선화사 도솔선원장 함현 스님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희망의 노래로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 한 곡의 음성공양이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대중에게 치유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북한산 선화사 도솔선원(선원장 함현) 무디따합창단(지휘 허철영)이 12월 3일 오후 6시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찬불가 신곡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선보이는 신곡 찬불가는 모두 함현 스님이 작사했다.

산스크리트어로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의 무디따합창단은 2019년 3월 31일 함현 스님이 불교문화 발전과 전법을 위해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개원한 도솔선원의 신도들로 구성됐다.

무디따합창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80여 명의 단원이 꾸준히 합창 연습을 했으며, 방역단계 완화로 그동안 미뤘던 찬불가 신곡을 처음 대중에게 선보이게 됐다. 이번 찬불가 신곡발표회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신곡 발표회에는 도솔선원 선원장 함현 스님을 비롯한 도솔선원 대중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교계 안팎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에 이어 선원장 함현 스님의 인사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축사 등 간단한 개회식 후에 신곡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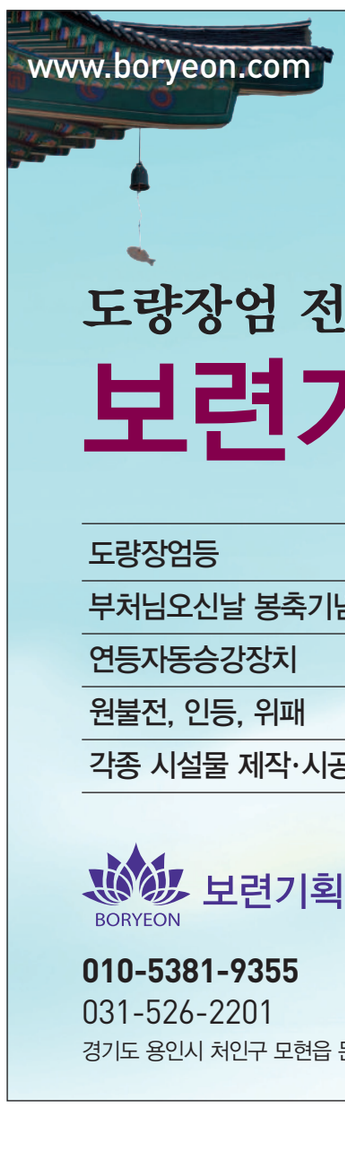
신곡발표회 1부에서는 '발원(김동환 작곡)', '무디따(한정일 작곡)', '생명의 불 생명의 꽃 아미타(조원행 작곡)', '가세 가세 가서 나리 극락 정토에(조원행 작곡)', '동지불공(조원행 작곡)' 다섯 곡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채령 · 유현주 · 이빛나 · 박소림, 테너 김주완, 바리톤 김재일, 소리꾼 이이화, 봉은사 남성합창단이 '그윽한 님(김대성 작곡)' 등 8곡을 선보인다. 이 중 '우담바라 꽃송이 활짝 피었네(이종만 작곡)'는 함현 스님이 지난 6월 원적에 든 연관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작사한 곡이다.

3부에서는 연합 합창 무대로, 무디따 합창단 솔리스트, 봉은사 남성합창단이 '함현자계(김대성 작곡)', '부처님 오셨네(김대성 작곡)', '회향(김대성 작곡)'을 노래한다.

함현 스님은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큰 재난과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2600여 년 전 중생의 고통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에 찬불가 발표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와 위안을 주고 싶다"고 이번 발표회의 취지를 밝혔다.

신곡 모두를 작사한 함현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주지, 청주 관음사 주지, 제천 고산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북한산 도솔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 저서로 〈숨길 수 없는 말〉(2004), 〈명사여운〉(2021), 〈머리 한 번 만져 보게나〉(2022), 찬불가 앨범집 〈천년의 향기〉(2015), 〈무디따〉(2020) 등을 펴냈다. 또한 군종특별교구 산하 군법당에 찬불가 CD를 기증하고, 풍경소리 찬불가 앨범 발매를 후원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전국 사찰 합창단이 참여하는 제1 · 2회 도솔불교합창대회를 개최하는 등 음악을 통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02)351-4422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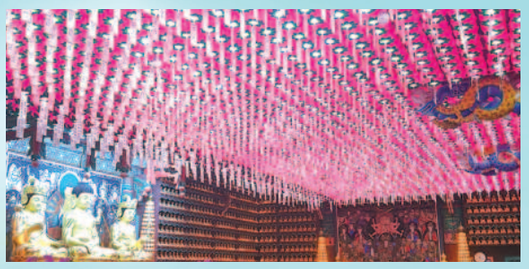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불연 이기영은 현실 외면하지 않았다”

한국불교연구원, 이기영 박사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연 이기영(不然 李箕永, 1922~1996)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일갈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정의(正義)의 화를 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불연 이기영 박사는 원효 연구에 매진한 세계적 학자이자 재가불교운동을 선도했던 실천적 불교인이었다. 그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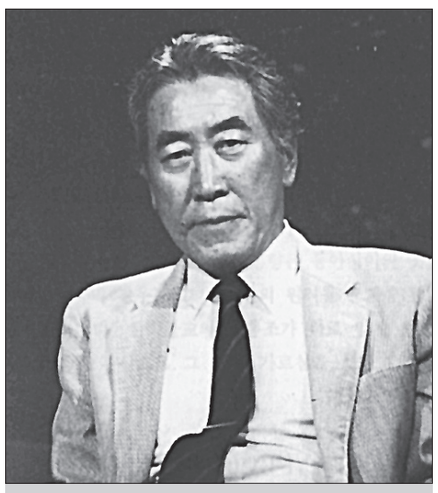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안성두)이 1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보살사상과 재가불교’로 이기영 박사 탄생 100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불연의 행적과 재가불교’ 주제발표에서 이기영 박사의 재가불교사상에 대해 조명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이기영 박사는 재가불교의 출발점을 민중불교의 선구자인 원효 스님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원 교수는 “불연은 원효 대사는 모든 사람이 보살이 되는 길을 가르쳤으며, 불교의 핵심 또한 보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법화경〉 ‘비유품’에서 불타(佛陀)는 ‘지금 이 삼계는 다 나의 소유이니, 그 안에 있는 중생은 모두 나의 자식이다. 지금 이곳에는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나 혼자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교수는 이기영 박사의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을 통해 재가불교운동의 지향점을 살폈다.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은 1977년 출간된 이기영 박사의 수상록으로 그의 사후 1998년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이기영 박사는 저서에서 전 세계가 이기주의적 가축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각축의 주체는 오만한 인간의 야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대사회의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저버린 종교, 자각을 무시한 종교, 현실을 외면한 종교, 그러한 종교는 기도를 하건 염불을 하건 결국 다 헛된 입장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애, 재가불교 운동 등 조명
불연 “원효, 재가불교 출발점”
“‘현실 외면한 종교는 헛소리’
일갈한 이기영 충고 되새겨야”



불연 **이기영 박사**는 1922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났다. 호는 불연이며, 법명은 서봉이다. 1941년 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1943년 일제에 의해 징병돼 종군했다. 싱가포르 수용소에 포로로 수용되는 등 고초를 겪다가 1946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 이후 대구효성여고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벨기에 루벵대학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 귀국한 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전임 강사 및 교수로 학문적 역량을 펼쳤다. 〈원효사상〉 등 수많은 명저를 저술하는 등 한국 불교학을 현대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재가불교 육성과 보살정신의 생활화에 힘쓴 실천적 불교인이다. 1996년 11월 별세했다.

이 같은 이기영의 어록에 대해 원 교수는 “마음, 마음의 자각, 공업 · 불공업의 현실에 속한 인간고의 해결은 불법 공능(功能)의 삼위일체”라면서 “재가불교운동은 불연의 이 언설이 해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주 前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불연 이기영의 주요 행적과 불교적 이상’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 연구 활동과 실천 활동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이기영 박사의 불교연구는 대승불교 · 비교종교 · 한국불교 · 실존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정법으로서의 대승불교와 보살도의 실천에 중점을 둔 원효의 불교사상 연구에 집중”됐다는 게 임 前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임 前 수석연구원은 “이기영 박사는 원효 사상의 핵심은 원효가 표명한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에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불교적 이상으로 제시했다”면서 “박사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현양과 세계화를 추구했으며, 현실사회의 개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사상 개발을 위한 불교학술연구지 〈불교연구〉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이기영 박사의 불교 실천활동은 연구의 연장에서 이뤄졌고 그 기본의 전법에 바탕을 뒀다. 그가 창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이 대표적 사례다. 이기영 박사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불교기초과정 강좌를 열었고, 이는 현대 한국불교의 질적 양적 발전의 동력을 제공했다. 연구원 산하에 전국적인 재가불자 단체로 ‘구도회’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부설 교육기관 ‘원효학당’을 개설해 많은 법사를 배출했다.

임 前 수석연구원은 “이기영 박사는 진리를 증거하고 구현하기 위해 한국에 나툰 현대의 대승보살”이라고 상찬하며 “이는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불교연구와 불교실천 활동의 행적이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영 박사는 ‘원효 자신이 제시한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법을 현대에 살려가는 일을 마지막에까지 시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원효불교의 재발견과 한국불교의 방향(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현대 종교문화의 지형과 불교의 미래(송현주 순천향대 교수) △원효의 〈법화종요〉와 요익중생(남동신 서울대 교수) △원효의 보살사상-열반연기론과 무주처열반론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성철 금강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태허 스님 다룬 웹툰 ‘우단사련’ 만나보세요

독립운동가 웹툰 플랫폼
독립닷컴서 연재 시작해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약했던 봉선사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을 다룬 웹툰이 연재를 시작했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11월 10일 의열단 창립 103주년을 기념해 의열단 출신 대한민국임시정부 부부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과 중국인 부인 두쥔훼이와의 혁명과 사랑을 다룬 웹툰 ‘우단사련’ 연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웹툰은 총 18화로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 플랫폼인 ‘독립닷컴(www.dok-lip.com)’에서 11월 10일 게재를 시작해 매주 3화씩 연재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독립운동가 웹툰을 전파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협업하려 했으나 독립운동가 웹툰 작품이 포털이 추구하는 상업적 코드와 배치돼 유관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 플랫폼 ‘독립닷컴’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회는 “독립닷컴은 ‘우단사련’ 연재를 필두로 이미 제작된 독립운동가 웹툰 작품들을 수집해 플랫폼에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웹툰 연재 종료 시점과 맞춰 웹툰을 만화책으로도 출간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암 김성숙 선생으로 알려진 태허 스님은 의열단, 임시정부 내무차장 · 국무위원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했으며, 해방 후 독재정권에 맞서 신민당 창당 주역으로 활동하다 1969년 4월 12일 동지들이 비를 피하라고 마련해준 ‘피우정’에서 서거했다.

부인 두쥔훼이 여사는 여성 엘리트운동 혁명가로 ‘중국부녀자운동 이론연구’의 선구자다. 중국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요원 및 한국구제총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국적을 초월해 일제 침략을 타도하려 노력했다. 지난 2016년 제71주기 광복절에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신성민 기자

천년 관음성지 낙산사 불상 조명한다

한국미술사연구소, 11월 19일 학술대회

천년 관음기도 도량 낙산사의 불상 조각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1월 19일 오후 1시 ‘천년의 관음성지 화엄종찰 낙산사의 불상 조각’을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낙산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금당 전단소조관음보살상의 연구’ 기조 발표로 문을 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낙산사의 불상들에 대한 전문 연구논문들이 소개된다.

이분희 조계종 문화팀장은 ‘낙산사 관음전 건칠관음보살상의 연구’를, 주수완 우석대 교수는 ‘낙산사 이대성 정취보살상의 고찰’, 유미나 원광대 교수는 ‘낙산사 동종보살상의 특징과 의의’를, 문무왕 前 동명대 교수는 ‘낙산사와 의상의 관음신앙’을, 문 명예교수는 ‘선림원지 출토 신라 최고 명작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의의와 낙산사’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고승희 동국대 외래교수, 이수예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고려대장경 인출본 가치 논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1월 26일 동계학술대회
5회 퇴옹학술상 시상식도

고려대장경 인출본 현황과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권기현)는 11월 26일 오후 1시 부산 고심정사에서 ‘고려대장경 인출본의 현황과 그 가치’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해인사 대장경판과 대방광불화엄경 인출- 남해 부소암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진본)〉권53 사례(한홍익 해인사 종무소 차장) △한국 현대기 1963~68년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특징(박용진 국민대 교수) △〈고려대장경〉 인출본 ‘당현시범’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최문희 동아대 강사) △고려 간행 불전(佛典)과 〈고려대장경〉인출본의 일본 전래(최연주 동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강경구 동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이종수 순천대 교수, 전진이 진영철도박물관 학예사, 박광연 동국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5회 퇴옹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퇴옹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 스님의 법호다.

시상식은 삼귀의례와 권기현 회장 개회사, 최연주 퇴옹학술상 선정위원장 선정과정 보고, 고심정사 회주 원택 스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0

▶ 91회 예고
마침내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에게 가족과 함께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등 붓다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전해 듣는다. 다만, 전국으로 파견될 담마마하마따들의 임명장 수여식 때문에 〈초전법륜경〉 뒷부분은 듣지 못한다.



마힌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세 번째 찾다

아쇼까왕은 바위나 석주에만 칙령을 공포하는 것은 아니었다. 재위 17년부터는 전국의 마하마따 사무소로 왕명이 적힌 문서를 적극적으로 내려 보냈다. 가정을 가진 백성들에게 집 안팎에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도 문서 칙령이었다. 사람과 동물을 위해 길가에 반얀나무를 심어 그늘쉼터를 만들고, 우물을 파라는 칙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집 안팎에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한 왕명은 처음이었다.

물론 아쇼까왕은 다섯 그루의 나무를 정할 때도 우빠굽따의 조언을 들었다. 우빠굽따는 순례자였으므로 보고 들은 것이 많았다.

"대왕님이시여, 약이 되는 약나무에는 님(nim)나무가 있습니다. 님나무 껍질을 달여 마시면 피가 맑아집니다. 또 독충에 물렸을 때 해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작은 가지로 이를 닦으면 입안을 살균해주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열매즙은 피부병을 치료해줍니다."

"님나무는 백성들에게 약방이나 다름없소. 나무 씨는 쉽게 구할 수 있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님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이니 식구들의 그늘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일나무로는 망고나무가 좋을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그렇습니다. 망고는 옛 아반띠국 북쪽 변방의 것이 유명합니다. 그곳 망고나무에서 씨앗을 가져와 퍼뜨리면 달고 큰 망고를 백성들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땔나무로는 무슨 나무가 좋겠소?"

"화력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가 적당할 것입니다."

"집 짓는 재목은 단단한 나무여야 할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단단한 나무로는 살라나무만한 것이 없습니다. 살라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십시오."

"꽃나무로는 무슨 나무가 좋겠소?"

"옛 앙가국의 수도 짬빠성에서 많이 보았던 꽃이 있습니다. 흰 꽃이 피는 짬빠나무입니다. 또 붉은 마두 말띠 꽃도 아름답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섯 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희망과 미래를 심는 것이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살았다는 증표를 남기는 것이오. 그러니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후손을 위한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생명을 소중하게 돌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붓다의 자비입니다. 백성들이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는 동안 붓다의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의 자비가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 미치는 것 같아 감동했다. 선대의 어떤 왕도 아쇼까왕처럼 사람과 동물, 식물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던 군주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3년 만에 아쇼까왕의 지시를 받은 마힌다는 다시 상선을 타고 아호강가산으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아쇼까왕의 재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3년 전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라마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아쇼까왕을 위해 잠시 왕궁으로 가서 설법은 해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 아쇼까왕은 바로 재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을 뿐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면서 자신을 위해 자주 설법해 주기를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3년 만에 재가한 것은 그의 강한 자존심도 한몫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자 아쇼까왕은 자존심을 꺾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에 마힌다는 아쇼까왕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설법을 듣고 싶소. 장로가 아쇼까라마에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나를 위해 설법을 해달라고 전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미 3년 전에 승낙했던 일입니다. 바로 아호강가산으로 가서 장로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마힌다가 아호강가산에 온 것은 벌써 세 번째였다. 이제는 마힌다의 눈에 야무나강이나 마루라 나루터, 아호강가산으로 가는 들판 등이 낯익었다. 마힌다는 망설이지 않고 아호강가산 동굴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낮에는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이다. 아호강가산 동쪽 절벽 위에 있는 동굴은 야무나강 강변과 드넓은 들판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았다. 사탕수수밭 너머 하늘에는 새떼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날고 있었다. 마힌다는 동굴 앞에서 합장한 뒤 목갈리뿟다띳사를 불렀다.

"스승님!"

그런데 목갈리뿟다띳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힌다의 말이 동굴 안에서 공명할 뿐이었다. 마힌다는 다시 한 번 더 부르고는 그래도 기척이 없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쪽에 발우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목갈리뿟다띳사는 없었다. 마힌다는 발우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어린 사문들에게 하시는 강론을 밤에서 낮으로 옮기셨나?'

마힌다는 동굴을 나와서 목갈리뿟다띳사가 머무르고 있는 꾸띠로 갔다. 꾸띠는 아호강가산의 움막들 중에서 가장 오랜 된 집이었다. 아난다의 제자이자 우빠굽따의 스승이었던 삼부따 사나와시가 살았던 꾸띠이기도 했다. 아호강가산 비하르에 상주하고 있는 사문들이 목갈리뿟다띳사를 수석장로로 추대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했을 터였다. 목갈리뿟다띳사의 위상은 아호강가산으로 와서도 여전했기 때문이었다.

마힌다는 꾸띠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꾸띠 안에서 경을 외우는 소리가 났다. 마힌다의 예상은 정확했다. 특별한 날인지는 모르지만 강론시간이 낮으로 옮겨져 있었다.

마힌다는 꾸띠 밖에서 기다렸다. 목갈리뿟다띳사의 강론은 석양이 기울 무렵에야 끝났다. 어린 사미들이 재잘거리며 밖으로 나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마힌다는 꾸띠 안으로 들어가 합장했다. 그런 뒤 자신의 오른손으로 목갈리뿟다띳사의 발을 만지고서는 자신의 이마에 갖다대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합장하면서 말했다.

"3년만이군."

3년 만에 왔다고 타박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다는 말투였다. 마힌다는 3년이나 아쇼까왕의 재가가 늦어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왕명만 전했다.

"스승님께서 아쇼까라마에 상주하시지 않더라도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들으시겠다고 청했습니다."

"내 설법을 원하는 곳이라면 왕궁이 아니라도 어디든 갈 수 있소."

"대왕님께서는 스승님 설법을 열정적으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소. 다만 사미들에게 하고 있는 강론을 멈출 수는 없소. 강론을 마치는 날 바로 왕궁으로 가겠소."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듣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말고도 아쇼까라마에는 천 명의 장로가 있지 않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떤 장로가 설법하든 붓다의 가르침은 같기 때문이오."

"대왕님께서 왕자시절일 때 스승님이 대왕님을 가르쳤던 인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때의 인연은 선연이라기보다 악연이었소. 왕자에게 자비를 가르치려다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왕궁을 떠나버렸으니까."

"니그로다 장로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대왕님께서 어린 시절의 일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기에 스승님을 아쇼까라마 수석장로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힌다는 화제를 돌렸다.

"아쇼까라마는 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외도들이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훼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외도인지 사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왕님께서 파견한 담마마하마따도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고 다니는 외도는 가리지 못합니다."

"우뽀사타를 방해하는 외도들이 사라진 것이오?"

"스승님께서 떠나실 때 우뽀사타를 중지했습니다만 대왕님께서 우뽀사타를 계속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우뽀사타를 방해하는 외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만 아쇼까라마에 아직도 외도들이 숨어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외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한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목갈리뿟다띳사는 율사로서 계율이 지켜지는 청정한 사원을 원했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요."

"스승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오."

그제야 마힌다가 목갈리뿟다띳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담마마하마따가 한 사람씩 불러놓고 구두시험을 치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팔을 휘휘 저었다.

"담마마하마따가 논쟁에서 외도에게 질 수도 있소."

"그렇다면 우빠굽따 장로가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빠굽따 장로는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이오. 왜 적을 만들겠소? 다른 장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논쟁하지 말라고 했소."

"스승님, 외도를 추방할 힘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일 것 같습니다."

"그렇소. 오직 대왕님뿐이오."

마힌다는 아쇼까왕만이 외도를 추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또 하나의 방편을 얻고는 아호강가산을 떠났다. 이제 목갈리뿟다띳사는 꾸띠의 강론이 끝나는 대로 빠딸리뿌뜨라 왕궁을 방문할 터였다.

나흘 만에 빠딸리뿌뜨라 왕궁으로 돌아온 마힌다는 바로 아쇼까왕 집무실로 갔다. 아쇼까왕은 경호대장에게서 마힌다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집무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마힌다가 다소 들뜬 말투로 보고했다.

"드디어 대왕님께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소. 그런데 왜 혼자 왔소?"

"장로님은 그곳에서 해왔던 강론을 마치는 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한두 달 후면 올 것입니다."

"장로의 노고로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게 되었으니 기쁘오."

"대왕님이시여, 장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들 들어주지 못하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아쇼까라마에 든 외도를 추방하는 일은 대왕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외도인지 사문인지를 구분한단 말이오?"

"붓다의 가르침에 답이 있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 내용은 붓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스승님의 설법을 들으신 뒤 의심이 가는 사문들을 한 사람씩 불러 붓다의 가르침을 질문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외도일 것입니다."

"아, 좋은 방편이오."

마힌다는 몹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야말로 아쇼까라마를 완전하게 정화할 수 있게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집무실을 나와 경전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전법륜경〉을 소리 내어 외우며 아쇼까라마로 돌아갔다. 중천에 뜬 보름달이 마힌다를 뒤따르며 밤길을 밝혀주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㉒ 정중종(淨衆宗)의 무상(無相)



▶ 한줄 요약

정중종을 세운 무상은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대중들을 교화했으며, 그 핵심적인 사상이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계정혜' 삼학에 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출신으로 정중종 열고 한 시대 풍미



신라출신 무상은 정중종을 세우고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대중을 교화했다. 사진은 송광사 구족계 수계법회 모습.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홍인(弘忍) 문하에서 배출된 수많은 제자가 제도(帝都)로부터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그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동산법문이 당시의 불교를 장악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신라나 고구려 출신의 승려들이 동산법문에 귀의한 경우가 보인다. 도신(道信)의 법을 계승한 신라의 법랑(法朗)이 있으며, 홍인의 '십대제자' 가운데 고구려 승(僧) 지덕(智德)이 거명된다. 법랑은 최치원(崔致遠)의 '지증대사비명(智證大師碑銘)'에서 언급하고 있어 알려져 있고, 지덕은 홍인의 '십대제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명칭이 남아있는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십대제자'는 모두 한 지방의 법주(法主)를 맡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따라서 동산법문 계열에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법랑과 지덕 이외에 많은 신라와 고구려 승려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신라 출신으로서 동산법문 계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정중 무상(淨衆無相, 680~756 혹은 684~762)이고, 그가 세운 종을 정중종(淨衆宗)이라고 칭한다. 무상은 '지증대사비명'에도 그 명칭이 보이고, 최인연(崔仁渷)의 '낭공대사비(朗空大師碑)'에는 "건부(乾符) 2년(871), 성도(成都)에 이르러 여러 곳을 순례하다가 정중정사(靜衆精舍)에 이르러 무상대사(無相大師)의 영당에 예경(禮敬)하였는데, (무상)대사는 신라 사람이다. 영정에 참배한 후 후세에 남긴 아름다운 일화들을 모두 들어보니, 당(唐) 황제의 도사(導師)이며 현종(玄宗)의 스승이었다.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도 그 시대가 달라, 후대에 법을 구하러 와서 그 자취를 찾게 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으니, 이미 신라에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상과 관련된 자료는 종밀(宗密)의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에 그 법맥이 언급되어 있으며, 〈송고승전〉과 명대에 편찬된 〈신승전(神僧傳)〉 등에 그 전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돈황본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가 발굴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법계와 행적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참조하여 무상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대법보기〉에서는 "속성은 김(金)이요, 신라왕의 족성(族姓)이다."라고 하지만, 〈송고승전〉과 〈신승전〉에서는 "본래 신라국의 사람이요, 그 국왕의 셋째 아들이다."라고 한다. 더욱이 〈송고승전〉과 〈신승전〉에서는 부왕이 죽고 무상의 동생이 왕위에 오르자 무상이 귀국하여 왕위를 찬탈할까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추정된다. 만약 실제로 무상이 왕자였고 신라에서 자객을 보냈다면, 앞에서 언급한 낭공이 정중사를 참배한 일을 기록하면서 이를 누락시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에 구법한 승려 가운데 '김' 씨 성을 가지면 왕족, 혹은 왕자로 각색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지장보살 신앙의 본원이 된 김지장(金地藏)은 초기 문헌에는 "신라왕인 김씨 근속(近屬)"으로 표현되다가 명대 이후에는 "신라 왕자"이며 "김교각(金喬覺)"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얻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신라 국왕의 셋째 아들'과 '자객' 설은 후대에 형성된 전설이 아닐까 한다.

신라출신, 동산법문 귀의 정중종 세워
핵심사상 無憶·無念·莫妄 삼구어 집중
비문 "唐 황제의 導師이며 현종의 스승"

〈역대법보기〉에서는 막내 누이가 출가하자 무상도 따라 출가하였다고 하고, 〈송고승전〉에는 신라의 군남사(群南寺)에서 출가하였으며, 개원(開元) 16년(728)에 장안(長安)에 도착하여 선정사(禪定寺)에서 현종(玄宗)을 알현하였고, 〈신승전〉에는 현종으로부터 '무상'의 법호를 받았다고 한다. 〈송고승전〉에서는 그 후에 촉(蜀)의 자중(資中: 현 四川省 內江市 資中縣)에서 지선(智詵)을 만났으며, 그때 처적(處寂)으로부터 '무상'의 법호를 받고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 받은 마납의(磨納衣)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대법보기〉에서는 스승을 찾아 각처로 돌아다니다 자중의 덕순사(德純寺)에 이르러 당화상(唐和上: 處寂)을 만났으며, 당화상에게 소지공양(燒指供養)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 후에 '가사신의(袈裟信衣)'를 받아 은거하였다고 한다.

〈송고승전〉에는 은거 후, 수행하기를 매번 입정(入定)하여 5일을 넘겼으며, 후에 성도(成都)로 들어와 참답게 두타행(頭陀行)을 행하여 사람들이 점차 존중하여 정사(精舍)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당시 익주(益州) 장사(長史) 장구 겸경(章仇兼瓊)이 찾아왔으며, 그로 인해 '안사(安史)의 난'을 피해 촉(蜀)에 들어온 현종이 내전에 무상을 맞아들여 예배하였고, 또한 성도 현령(縣令) 양익(楊翌)이 귀의하여 정중사·대자사(大慈寺)·보리사(菩提寺)·영국사(寧國寺) 등을 건립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역대법보기〉에서는 다만 "후에 장구대부가 선법(禪法)을 열기를 청하여, 정천사(淨泉寺: 淨衆寺)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기를 20여년이 지났다."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송고승전〉과 〈신승전〉에서는 "지덕(至德) 원년(756) 5월(建午月) 19일 병환이 없이 시멸(示滅)하였는데, 춘추가 77세였다."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법보기〉에서는 무상은 보응(寶應) 원년(762) 5월 5일 갑자기 무주(無住)를 떠올리고, 그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비밀리에 공인(工人) 훈선(薰璿)에게 신의(信衣)와 17종의 다른 옷을 보내며 부촉하였고, 무상의 입적을 79세의 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달마의 가사전법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이는 까닭은 당시 선종의 정통성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주의 보당종(保唐宗) 계통에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의 법계를 계승한 것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밀의 〈원각경대소초〉 권3에서는 정중종의 법계를 "근본은 원래 오조(五祖) 문하에서 나뉘어 나온 것으로 이름은 지선(智詵)이며, 바로 (홍인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본래 자주(資州) 출신으로, 후에 자주의 덕순사로 돌아와 교화하였다. 속성(俗姓)이 당(唐)인 제자 처적(處寂)이 계승하였다. 후에 당선사는 네 제자를 두었다. 성도부(成都府) 정중사 김화상(金和尙)은 법명이 무상으로, 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도신→홍인→지선→처적→무상"의 법계가 옳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무상의 선사상은 어떠한가? 〈역대법보기〉에서는 무상의 교화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화상(金和上)은 매년 12월에서 정월에 이르도록 사부대중, 백천만인에게 수계(授戒)하였다. 엄숙하게 도량을 시설하여 고좌(高座)에서 설법하였다. 먼저 '소리를 끌어 염불[引聲念佛]' 하게 하여 숨이 다하도록 하고, 생각이 끊어지고 소리가 멈추어 생각이 그칠 때 다음과 같이 설한다. "기억을 없게 하고[無憶], 생각을 없게 하고[無念], 망령되지 않게 하라[莫妄]." '무억'이 계(戒)이고, '무념'이 정(定)이며, '무망'이 혜(惠)이다. 이 삼구어(三句語)는 바로 총지문(總持門)이다."

이로부터 보자면, 무상은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대중들을 교화했으며, 그 핵심적인 사상이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계정혜' 삼학에 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계의식은 바로 동산법문을 창립한 도신으로부터 온 것이라 추정된다. 도신에게 〈보살계법(菩薩戒法)〉이라는 저술이 있으며, 동산법문을 계승한 다른 계통, 예를 들어 선습(宣什)의 '남산염불문선종(南山念佛門禪宗)'에서 무상과 동일한 수계의식을 시행했다는 기록들이 보인다. 따라서 무상 등의 동산법문의 계승자들은 거의 같은 수계의식을 통하여 교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역대법보기〉에서는 '삼구어' 가운데 특히 '무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를 해석하기를, "염불기(念不起)는 마치 거울의 표면이 능히 만상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염기(念起)는 거울의 뒷면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기신론(起信論)〉에서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있다고 하는데, 무념(無念)이 '진여문'이고, 유념(有念)이 '생멸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종선(北宗禪)의 신수(神秀)와 거의 유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무념'이나 '염불기'와 같은 용어들은 홍인의 〈최상승론〉으로부터 신수의 〈대승무생방편문〉, 혜능의 〈육조단경〉, 신회의 〈하택신회선화록〉 등과 다양한 교학(敎學)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념'이나 '염불기'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사상적 함의를 지님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선에 있어서 용어가 같다고 결코 같은 사상이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상이나 신수는 '염불기'와 '무념'을 〈기신론〉의 '일심이문'의 입장에서 사용하지만, 혜능의 〈육조단경〉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신론〉의 사유양식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나아가 무상의 선법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보당종(保唐宗)의 무주는 '무념'을 염(念)의 작용이 없는 것이라 해석하지만, 〈육조단경〉에서의 '무념'은 결코 '염'의 작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과 같다.

신라 출신인 정중 무상 선사는 중국에 구법하여 종장(宗匠)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음에 우리에게 친밀함을 더한다. 무상은 수많은 제자를 교화하여 동산법문을 파촉(巴蜀) 지역에 유행하게 하였고, 황제의 귀의를 받았으며, 나아가 당대에 신라에까지 그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끊임없는 초월, 즉 '향상일로(向上一路)'를 제창하고 있는 조사선(祖師禪)의 종풍(宗風)에서 본다면, 초기에 속한 무상의 선사상은 한계를 드러냄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사상이 철저한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후대에 걸출한 조사선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무상의 정중종이 지니는 중요한 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

침대 유해수맥파는 각종 질병및 암을 유발한다.

◈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각종암,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피로 회복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불면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수맥파 차단으로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 유해수맥파로 인한 악몽, 가위눌림 등을 해결합니다.

– 수맥파차단 온수매트 샘플색상 –



수맥파차단 꽃담 싱글 | 수맥파차단 금사 더블 | 수맥파차단 황토 싱글 | 수맥파차단 루비 싱글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 규격 (온수보일러-전자파 제로)

호칭	규격(가로×세로)	두께(T)	온수보일러
S	1000×2000	30	220V60HZ- 280W
W	1400×2000	30	"
Q	1500×2000	30	"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판 : 오 륙 building
전화 : (062) 351-1981 HP : 010-3616-1200
공장 AS : (031) 765 – 9297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약사
- 주 지 : 천약 (속명 : 장이석)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391

위 사찰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량사
- 주 지 : 영암 (속명 : 양덕오)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유곡로 47-5(송촌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21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



▶ 한줄요약
희대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교화시킨 부처님의 일화는 유명하다. 이 일화와 유사한 전생담이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이다.

희대 살인마도 교화시킨 전생 부처님



도상 왼쪽부터 그림①②③ 5세기 후반에 조성된 아잔타 석굴 17굴의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 벽화.

잘못을 저지른 악인에게 벌을 내리는 이유는 악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여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징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징벌의 무게와 참회가 비례할까? 또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를 뉘우친 악인은 과연 선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에 부처님께 귀의한 몇몇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악인에서 선인 혹은 불교의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된 사례가 여럿 있다. 불교사에서 데바닷타와 쌍벽을 이루는 악인을 꼽는다면 앙굴리말라(Aṅgulimāla)라고 할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앙굴리마라경〉의 주인공으로 99명의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였으나, 후에 석가모니께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나 탁발을 나갔던 마을에서 그에게 살해된 사람들의 가족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중에 앙굴리말라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과연 연쇄 살인마 앙굴리말라의 전생은 어떠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악인을 어떻게 교화했는지 관련 경전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이 이야기는 팔리어로 기록된 자타카 547편 중 537번째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 (Maha-Sutasoma Jataka)와 당나라 승려 지엄(智嚴)이 한역한 〈불설사자소타사왕단육경〉(佛說師子素馱娑王斷肉經)에 실려 있다. 아주 긴 이야기를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먼 과거에 바라나시의 왕은 인간을 아버지로 사자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 그에게는 탁실라에서 함께 공부한 의롭고 지혜로운 한 친구가 있어 곁에서 늘 왕을 보좌하며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살생을 통한 육식은 좋지 않다는 친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가 없이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개들이 왕실의 주방에 들어가 왕의 상에 올릴 모든 고기를 먹어 치우자, 요리사는 자신의 부주의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얼마 전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에서 살을 잘라 냈다. 그는 그것을 쌀과 함께 볶아 왕에게 대접했고, 그 음식이 왕의 혀에 닿는 순간 왕은 지금껏 먹었던 그 어떤 음식에 비할 수 없는 천상의 맛이라 느꼈다. 왜냐하면 왕은 현생에서는 인간과 사자의 자식이며, 전생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야차였기 때문이다. 왕은 곧 요리사에게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 물었으나, 요리사는 단지 일반적인 고기를 정성껏 잘 구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왕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요리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자, 요리사는 개들이 고기를 모두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고기를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이후 이 일은 왕과 요리사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고, 요리사는 포로들을 죽여 왕에게 바치게 되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전쟁 포로들을 모두 먹어치운 왕은 감옥의 죄수들을 처형하여 먹었고, 점점 사람의 고기 맛에 취한 왕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살해하여 매 식사마다 점점 많은 양의 사람의 고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백성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왕에게 사람을 먹는 살인자를 잡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백성들은 다시 군대의 최고 사령관에게 요청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왕실 요리사를 붙잡았다. 요리사가 왕 앞에 끌려가서 모든 살인이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자백하였으나, 식인종이 된 왕은 사람들을 먹는 것을 중단하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 말하면서 왕국과 왕실의 가족들보다 사람의 고기가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식인종 왕은 칼 한 자루와 요리사만을 데리고 숲으로 추방되었고, 숲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살았다.

그러나 이 숲에 무시무시한 식인종 왕이 산다고 소문이 나자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마침내 굶주림을 못 견딘 왕은 요리사까지 잡아먹게 되었다. 식인종 왕의 위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 높은 담을 쌓았으나, 왕은 담을 넘어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하여 이웃 나라의 왕 백 명을 붙잡아 나무에 매달아 놓기까지 하였다. 이때 더 이상 절친한 친우의 악행을 볼 수 없었던 왕의 친구가 왕의 사악함을 꾸짖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왕에게 바치며 이 몸을 먹고 더 이상의 살생을 하지 말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친구가 마지막으로 왕에게 지옥의 두려움과 극락의 아름다운 세계를 들려주자, 결국 왕은 눈물을 흘리며 살인과 식인 행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 왕은 스스로 굶어 죽겠다고 하였으나, 친구의 설득으로 바라나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왕좌에 올랐다. 이후 왕과 모든 백성들은 살생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앙굴리마라 교화 시킨 일화 '유명' 식인 유희를 즐긴 왕을 교화해낸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와 유사해 아잔타 석굴 등에 재현돼 교훈 줘"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 의 식인종 왕은 앙굴리말라의 전생으로, 그가 살해한 99명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두르고 더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해하려다가 부처님께 계몽돼 제자가 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그리고 왕의 악행을 막으려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던 친구가 부처님의 전생이다. 이 이야기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형상화되었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 조성된 바르후트 스투파(Bhārhut Stupa)의 난순(欄楯)에 묘사되어져 있으며, 이후 5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아잔타(Ajanta, 인적이 드문 혹은 고요한) 17굴과 15세기 경 도해된 태국 방콕의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arn)사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잔타 17굴의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 가 그려진 벽화를 살펴보면 인간 왕의 아들을 낳은 어미 사자가 아이를 아버지인 왕이 사는 궁전에 데리고 와서,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을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그리고 맞은편에 왕이 두 손으로 아이를 안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그림①)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성장한 왕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어느 날 왕의 음식을 요리해야 할 요리사가 고기를 개들에게 빼앗겨 몰래 어린아이의 시신에서 고기를 떼어내어, 왕의 음식에 사용하였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요리사의 모습과 주방의 다양한 조리 도구가 이야기의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②)

그리고 이러한 왕의 식육 행위와 요리사의 악행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군대의 사령관과 분노한 백성들이 활과 칼을 들고 식인종 왕을 몰아내는 장면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그림③) 이어지는 뒷이야기는 위의 경전 요약에서 보아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악행을 계속하던 왕이 마지막에는 친구의 충언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게 된다.

당나라 승려 지엄이 한역한 〈불설사자소타사왕단육경〉은 '마하 수타소마 자타카' 에서 교훈적인 여러 비유(譬喩) 부분만 빠지고, 거의 원전에 가깝게 한역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식인종 왕은 제석(帝釋)이 사자 소타왕(素馱王)으로 태어난 것이며, 왕의 친우는 이웃 나라의 문월왕(聞月王)으로 서술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에서 식인종 왕으로 그리고 앙굴리말라로 환생한 인물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업이 아닌 악업 위에 악업을 쌓아서 너무도 안타깝게 여겨지는 한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더불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생의 내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 보다는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선업을 쌓으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인 앙굴리말라의 죽음 앞에서 "수행자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지옥에서 치뤄야 할 업보를 미리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냥 힘들고 억울하기보다는 지금 치룰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고 싶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④ 대탑과 화엄경 입법계품

▶ 한줄 요약
보로부두루대탑에는 4개의 회랑이 있다. 이들 회랑에는 많은 부조상이 있는데 이와 〈화엄경〉의 관계를 조명해봤다. 실제 2회랑의 경우 십신부터 십지까지 계위를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대탑 2회랑 부조, 화엄계위 훌륭히 재현

보로부두르대탑(Borobuduru Stupa)이 '화엄경탑' 임을 들어내는 방법 3가지 중, 지난 연재에서는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십지품' 을 배대해 서로 상응함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대탑의 4개 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52수행계위(階位)를 담고 있는 〈화엄경〉 '입법계품'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탑이 '화엄경탑' 임을 밝히고자 한다.

'입법계품' 은 〈화엄경〉의 마지막 품으로서 39품 중 한 품이지만 그 분량은 권수(60~80)로 볼 때 총 〈화엄경〉 분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또한〈화엄경〉 앞의 1~38품의 화엄 사상과 수행 체계를 선재동자를 통해 드러내고 있어, 보로부두르 대탑의 4개의 회랑의 부조상이 입법계품의 내용일 경우 대탑이 '화엄경탑' 이란 주장은 아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입법계품' 에서 수행자 선재동자는 남인도 복성(福城, Dhanyakatakam)에서 지혜제일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법을 들은 후 발보리심하여 남방으로 유람하며 선지식(善知識, Kalyana Mitra)을 친견하고 보리도와 행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53선지식을 찾아가 보리도를 얻어 문수 · 보현보살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와 대등한 법계에 마침내 들어간다. 선재동자가 체득한 단계별 수행계위는 첫 단계인 십신(十信)에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에 이르러 그 후 부처의 법계에 이르는 단계로 52계위이다. 이 수행계위를 대탑의 4회랑 부조상과 배대하여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대탑이 '화엄경대탑' 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보로부두르대탑 3층 1회랑은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다른 회랑에 비교해 넓고 높으며 또한 길다. 주벽과 난순은 다른 회랑이 단층인데 반에 복층상하 구조로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 주벽 상단은 부처님 이야기 120편이, 주벽 하단 석가모니 본생담 120편이, 그리고 난순 상단 본생담 372편, 난순 하단 본생담 128편이 부조상으로 조성돼 있다. 본생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로 집결됨으로 주요 내용은 주벽 상단 부처님 일대기라 할 수 있다. 주벽 상단의 내용은 석가세존이 탄생 전 주석하던 도솔천의 장면에서 시작하여 최초의 5비구를 제도하고 전법 선언까지의 이야기가 120장면의 부조상으로 조성돼 있다.

부조상의 특이한 점은 세존의 행적을 부조한 120장면의 끝이 붓다의 열반지 쿠시나가르가 아닌 최초 설법지 녹야원의 전법선언 장면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 후 그곳에서 보내신 칠칠일 중 첫 삼칠일에 천신들에게 설법한 〈화엄경〉을 녹야원에서 교진녀 외 4비구에게 설한 법과 같이 초전법륜으로 보고 있음을 여겨진다. 〈화엄경〉 '약찬게' 의 "근본화엄전법륜(根本華嚴轉法輪)"과 상통한다. 따라서 대탑의 1회랑은 〈화엄경〉의 설법을 표현한 회랑으로 2 · 3 · 4회랑으로 전개되는 '입법계품' 의 전개 과정에서의 시작점으로 기 · 승 · 전 · 결의 '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탑 2회랑 91번째 부조상. 창녀인 바수밀다 여인과 선재동자와의 만남을 재현했다. 바수밀다 여인은 26번째 선지식이다.

대탑 4층 2회랑과 화엄경

2회랑은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굴되고 부조상들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대탑이 '화엄경탑' 임을 보이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회랑이다. 이 회랑이 비정되지 않았다면 3회랑 4회랑은 해석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특히 4회랑의 부조상에 관한 비정 결과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 이곳의 부조상 비정의 결과들은 단서와 패턴으로 제공되어 알기 어려운 부조상을 분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회랑 부조상은 주벽 128면(Ⅱ.A.1-128)과 난순 100면(Ⅱ.B.1-100)으로 이뤄졌다. 2회랑 주벽이 주요 내용임으로 이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다룬다. 이곳의 주 내용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며 보리도를 구하고 점점 성취해서 마침내 불지에 도달하는 수행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52계위로 구성돼 있다.

2회랑 첫 장면이 동쪽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불보살과 선지식 이야기가 벽면에 도상돼 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남순동자 선재의 구법여행을 표현하기에 최적이다.

2회랑 주벽 부조상 1면에서(Ⅱ.A.1) 부조상 15면(Ⅱ.A.15)까지는 80〈화엄경〉 '입법계품' 의 근본 법회 장면에 해당한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보살마하살 오백 사람과 함께 계시는데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 그 외 성문, 연각, 세간의 왕들이 운집하여 있는 장면이다. 이 범위의 내용은 4회랑 보현보살의 신통함을 묘사하는 부조상과 거의 똑같아 그 곳 비정에 활용된다.

대탑 4개 회랑 상존하는 부조상들
화엄경 '입법계품' 상관관계 많아
2회랑, 십신부터 십지까지의 계위
'입법계품' 53선지식을 통해 보여

Ⅱ.A.1(2회랑 주벽 첫 번째 부조상)에는 부처님이 처음 등장하는데, 거룩한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사들이 상서로운 곡을 연주하고 보살들이 부처님을 참배하는 장면이다.

Ⅱ.A.2는 "그때 세존께서 코살라국 기원정사의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보살마하살 오백 사람과 함께 계시는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입법계품' 의 경구를 표현하고 있다. 보현보살이 부조상 위쪽에, 문수보살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여러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수보살은 아직 피기 전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데 부조상에서는 보살들의 구분을 위해 중요 보살은 각자 상징적인 꽃을 들고 있다.

Ⅱ.A.3은 오백 보살마하살, 오백의 성문, 오백의 임금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하던 모습을 나타낸다.

Ⅱ.A.4에서 Ⅱ.A.13까지 10면 부조상은 시방세계인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하방, 상방에서 온 보살들을 차례로 표현하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Ⅱ.A.14는 보현보살이 시방세계에서 찾아온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놓은 사자빈신삼매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오른쪽 3층 구조는 많은 보살을 뜻하며, 왼쪽 보현보살이 들고 있는 꽃은 보현보살의 상징으로 모든 보현보살이 들고 있다. 이는 4회랑 보현보살 비정에 활용된다. 이렇듯이 이곳의 도상은 다른 회랑 비정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Ⅱ.A.15는 시방세계에서 온 각각 세계의 대표 보살이 부처님 주변에서 보배 연화장을 변화시켜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Ⅱ.A.16은 첫번째 선지식 문수보살을 선재동자가 남인도 복성에서 친견하는 장면이다. Ⅱ.A.17은 두 번째 선지식 덕운비구, Ⅱ.A.18은 3번째 선지식 해운비구, Ⅱ.A.19는 4번째 선지식 선주비구, Ⅱ.A.20은 5번째 선지식 미가장자, Ⅱ.A.21은 6번째 선지식 해탈장자, Ⅱ.A.22는 7번째 선지식 해당비구, Ⅱ.23은 8번째 선지식 휴사우바이, Ⅱ.A.24는 9번째 선지식 비목구사선인까지는 경전의 순서대로 선지식이 등장한다. 그 이후부터는 순서의 나열이 패턴이 없다.

부조상 주벽(Ⅱ.A.25)에 10번째 선지식 승열바라문이 나오지 않고, Ⅱ.A.70에 나오게 된다. Ⅱ.A.25에는 11번째 자행동녀 선지식이 등장하면서 부조상 순서와 선지식 배열이 연속성을 잃게 된다. Ⅱ.A.26은 12번째 선지식 선견비구, Ⅱ.A.27은 13번째 선지식 자재주보살, Ⅱ.A.28은 14번째 선지식 구족우바이, Ⅱ.A.29는 15번째 선지식 명지거사, Ⅱ.A.30은 16번째 선지식 법보장장자, Ⅱ31과 Ⅱ32는 다른 변상도가 조성돼 있고, Ⅱ33은 17번째 선지식 보안장자가 나온다. Ⅱ34도 보안장자(히카타 주장), Ⅱ35는 18번째 선지식 무염족왕, Ⅱ36은 19번째 선지식 대광왕(히카타 주장)이다. 계속해서, Ⅱ42 부조상에 24번째 선지식인 무상승 장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 선지식은 Ⅱ89 부조상에 조상되었다. Ⅱ70 부조상 이후 앞에 나온 선지식이 다시 나오는데 불규칙적으로 나옴으로써 안내서 없이는 부조상에서 각각의 선지식 파악이 쉽지 않다.

부조상이 경전의 선지식 순으로 안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보다 더 많은 선지식을 친견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회랑벽에 부조상의 이차원적인 일렬 배치의 특성상 중복되는 인물을 피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경전에 문수보살이 나오고 보현보살이 나오고 다시 문수보살이 나오는데 부조상에서는 처음 문수보살을 생략하고 보현보살을 Ⅱ14에 먼저 변상화했다. Ⅱ16에서 처음으로 문수보살이 나온다. 또한, 10번째 선지식 승열바라문이 선지식 순서로 나오지 않고 Ⅱ70에 등장한다. 26선지식 바수밀다도 뒤쪽 Ⅱ91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런 현상은 전 회랑에 걸쳐 적용됨으로 순서의 변동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51번째 선지식인 미륵보살 관련 부조상은 128부조상 중 126번째, 127번째 나오는데 3회랑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질 미륵보살과 선재동자의 전용층에 대한 예고편에 해당한다. 53선지식 보현보살은 128번 제일 끝 부조상에 변상화되어 있는데 3회랑 경우와 마찬가지로 4회랑에 보현보살과 선재의 재등장에 대한 예고편이다. 2회랑의 이러한 비정을 통해 본 결과 2.3.4회랑이 서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위에서 2회랑 주벽의 부조상을 비정한 결과 '입법계품' 의 53선지식이 부조화돼 있어 2회랑은 화엄수행 52계위와 배대됨을 알 수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 은 수행자의 수행 계위와 불지에 이르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주요 역할이므로 2회랑 부조상의 배치는 '화엄계위' 를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 하겠다. 2회랑은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까지의 계위를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 보이며 대탑 4회랑 중 기승전결의 '승' 에 해당한다.

〈아제여행사 대표〉

청빈한 스님들에게는!
마이크 하나만 바꾸셔도 법당 소리가
놀랍게 달라지는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소개법 : 전화 하시면 귀 사찰 부근을 지날 때 겸사겸사 들러서 마이크소리 비교 테스트!
마이크소리 테스트 비용 : 한잔
3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및 마이크만 바꿈도 2천여 사찰!
▣ 본품은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시설상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각종 "재" 전문 무선시스템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생명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혈자리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혈자리들을 죽어라 익히고 그 자리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침술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완전 초보자분이라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生死, 삼계 안과 밖 어디서 받을 것인가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㊸ 두 가지 죽음

〈원문〉

승만 부인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죽는 것이 있사오니,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분단(分段)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의 하게 변역(不思議變易)하여 죽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죽는 것은 허망한 중생을 두고 한 말이요, 부사의 하게 변역하여 죽는 것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대력(大力) 보살들의 마음대로 태어나는 몸으로부터 위없는 보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죽는 것 중에 분단으로 죽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라한 · 벽지불의 지혜를 일러서 태어나는 일이 다하였다 하고, 더 해야 할 수행이 남아 있는 과(有餘果)를 증득하였으므로 범행(梵行)이 이미 섰다 하였고, 범부인 인간세상 사람 · 천상의 사람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일곱 가지 학인(學人)들로는 앞서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지을 것을 이미 이루었다 하고, 아라한 · 벽지불의 끊은 번뇌로도 다시 뒤의 몸(後有)을 받지는 아니하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을망정 온갖 번뇌를 모두 끊었고, 온갖 받을 몸을 모두 다하였으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뇌는 아라한 · 벽지불로는 끊지 못할 것이 있는 까닭입니다."

〈강설〉

번뇌를 끊고 생사를 해탈한다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이다. 생사 해탈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의미이며, 때로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연에 의한 생멸법 현상인데 이 장에서는 나고 죽는 생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분단생사와 부사의변역생사를 말하는데 분단생사는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유루(有漏)의 선악업을 인(因)으로 하고 번뇌의 장애(煩惱障)을 연(緣)으로 하여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 안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과보가 수명의 장단이라든지 신체의 대소 등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 한다. 이러한 분단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라 하고, 변역생사(變易生死)는 삼계 안에서 윤회하는 몸을 여의고 성불할 때까지 자기의 수행 정도에 따라 삼계 밖에서 받는 생사를 말한다. 미계(迷界)를 벗어나 오계(悟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생사를 말한다. 몸의 형태나 수명에 어떤 한계가 없는 생사이다. 번뇌가 없는 선정과 서원의 힘에 의해 미묘한 작용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라고 부사의를 앞에 붙여 말했다. 성문이나 벽지불 대력보살 등은 변역신의 상태에서 생사를 받는다 한다. 이 변역생사는 의생신으로써 생사를 받기 때문에 분단생사와 다르므로 실질적인 생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삼론종(三論宗)을 세운 길장(吉藏: 549~623)이 〈승만경〉을 주석한 〈승만보굴(勝鬘寶窟)〉에는 분단생사와 변역생사를 설명하기를 분단생사는 몸의 형태에 구별이 있고 수명에 한정된 기한이 있어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차이가 있으나 변역생사는 몸 형태의 구별이나 수명의 길고 짧음이 없고 다만 심신(心神)이 찰나마다 서로 전해지면서 앞에서 변하고 뒤에서 바뀐다고 하였다. 곧 심신(心神)이 찰나마다 변하고 바뀌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받는 몸이기 때문에 심식(心識)으로 이루어진 의생신(意生身)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무명주지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변역신으로 삼계 안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보살행을 닦아야 무상보리에 이르며, 무명주지번뇌는 오직 부처님만이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분단생사는 헛된 생사로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의 죽음인 반면, 변역생사는 업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의해 생을 받기 때문에 비록 번뇌를 완전히 다하지는 못했지만 번뇌에 의해 끄달림을 받지 않는 의생신으로 범부의 생사 경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리심 · 참회 · 대신심 · 대분심 · 대의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㊻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2. 깨달음을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선정 · 삼매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면 이제부터는 깨달음 얻기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보리심(菩提心)이란 깨달음을 반드시 꼭 성취하고 말겠다는 각오에 찬 의지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대도를 성취하여 성불을 이룩하고 말겠노라는 대의지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을 발보리심(發菩提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각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救援)하고 일체의 악으로부터 구호(救護)하겠노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구호의 각오이며 서원인 것입니다.

이 서원과 발보리심은 불교에 있어서 모든 신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선정 · 삼매 수행을 할 때는 이 발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이타적인 서원과 발보리심의 의지가 수행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대승보살도의 실천수행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정 ·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영겁에 걸쳐 지은 악업과 불선업을 참회하고, 그 업력에 따른 장애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업을 참회하고 업력의 장애를 제거하는 총체적 방법은 바로 예경 · 예불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제거하는 개별적 방식에는 참회나 권청(勸請) 그리고 수희(隨喜)와 회향(廻向) 등이 있습니다.

참회(懺悔)는 영겁에 걸쳐 지은 악업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으로 권청함으로써 정법을 비방한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라 기뻐하는 수희심을 일으키면 타인을 질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에 회향하는 것을 통해 삼계에 집착한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경 · 참회 · 권청 · 수희 · 회향 등의 일체의 악업과 불선업을 제거하고 업의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기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신심(大信心) · 대분심(大憤心) · 대의심(大疑心) 일으켜야

훌륭한 선정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큰 신심(信心)이 있어야 하고 둘째, 큰 분심(憤心)을 일으켜야 하고, 셋째는 큰 의심(疑心)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신심(大信心)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비록 업이 두터운 중생이지만 올바르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도 반드시 도업(道業)을 성취할 수 있다' 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정신(大正信) 즉 큰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옳게 닦아서 나도 성불할 수 있다' 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온갖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대분심(大憤心)을 일으킨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성현들께서는 모두 다 일대사 인연(一大事因緣)을 마치고 생사해탈을 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건만,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무량겁 세월 동안을 윤회 속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 속을 헤매며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분하고 원통하구나!

이와 같이 자신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한 생각과 억울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한 마음이 없고 억울한 생각이 없으면 수행할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용맹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분심을 일으켜야만 용기가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맹심이 생겨나서 생사해탈을 위해 분발하며 불퇴전의 의지로 생사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㊸ 마간디야의 경 2

몸과 마음은 그대가 아니다

"마간디야여, 이와 같이 나는 그대에게 '이것이 질병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가르침을 설한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 질병 없음을 알고 그 열반을 볼 것입니다. 그대에게 눈이 생겨나면, 다섯 가지 집착의 다발에 대한 탐욕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대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나는 오랜 세월 이 마음에 의해서 속고 기만당하고 미혹되었다. 나는 물질을 취해서 집착하고, 느낌을 취해서 집착하고, 지각을 취해서 집착하고, 형성을 취해서 집착하고, 의식을 취해서 집착했다."

몸과 마음을 '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뭇 삶에게 "몸과 마음은 그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뭇 삶은 과연 '무엇을 나라고 하여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일반적 사고의 신호체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문을 갖는 신호체계를 끊는 것이 진짜 '나[無]'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찰나지간에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되어, '몸과 마음 안에 신호체계를 끊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잇따른 희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론은 상황을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 하고 만다. 본질은 희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물질을 가지고 본질을 더듬는 일은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어 코끼리의 모양을 말하는 것과 같다.

언어로써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순간 의식보다 빠른 보검으로 양변을 둘로 쪼개어 진실을 보는 눈을 드러낸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일상사가 사실이라는 생각의 바탕 위에 비친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허상에 펼쳐지는 현상들은 있다는 마음을 낼 수도 없고, 없다는 마음을 낼 수도 없는, 실재하는 자극이 없는데도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환각 같은 증상이다. 이러한 환각에서 깨어나면 증상은 잘못 알아 틀린 것이 아닌,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의 미혹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삶과 수행 속에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절망들은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꼭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내면에서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잠재한다. 오리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한가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발놀림이 바쁜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엇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물질로 일어난 일에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이 아닌 그 현상만을 바르게 보는 마음이 생겨난다. 지금 씨앗이 있는지, 씨앗을 심을 땅이 있는지, 적당한 날씨에 심고 있는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지 등 현상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특별히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사고에서의 객관적인 살핌이다. 어디에서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지를 알고, 그곳에서 무엇을 집착하는지를 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알고, 취하려는 힘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 저절로 놓아짐이 생겨나는 것이다.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보면 바른 견해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나[無]' 와 '나[無]아님' 이 분명하여 놓아짐 없이 놓아지는 현상들에 대해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을 안다. 지금 사대오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떤 설명을 하고,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몸과 마음에 대해 바른 견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른 사유이자 바른 수행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으로 성취한 알았다는 견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다른 견해에 의해 무너지거나, 다른 뭇 삶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있다. 자신이 '나[我]' 라고 하는 '나[我]' 는, 자기 자신도 믿고 신뢰하기 어려워 틈만 나면 변경하고 수정하고 변화를 꾀하지만, 무엇이 끝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두려워한다. 만약 이러한 '나[我]' 를 진짜 '나[無]' 로 안다면 이것이 질병을 만드는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속고 기만당하고 미혹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을 '나[我]' 라고 알지 않으니,
몸과 마음에 있는 질병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12호 | 17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계초심학인문》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1주일에 1회 개별 책임교육
◈ 불교 비급전수
◈ 3주후부터 상담가능

정 광 합장
(동국대 대학원 석사졸업)

전화 010-3936-2295

16나한님 모셔갈 분

연식이 오래된 것입니다.

❊ 대구지역 ❊
2천6백만원 (절충가능)

010-9193-1779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관 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 상담문의 ▣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공양주 모십니다

■ 영산법화사 홈피 : http://ysbuphwasa.org/
■ 영산법화사 소개 :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입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 기본증명서 1통
■ 4대보험 가입 월급 195만원 ~ 250까지 (월 휴무 2일) 출퇴근도 가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6 영산법화사
■ 상담 문의 : 02)762-4922 / 담당 총무 도엽 010-8737-2766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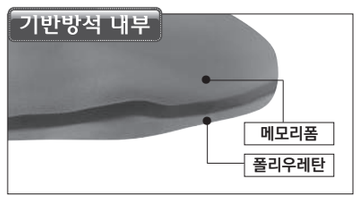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2호 | 18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2백만원 (2개월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대지 1600평
- 건평 100평(대웅전, 요사채, 사무실)
- 산세 수려한 청정지역
- 주차장 완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5억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5년간 분할상환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010-9647-0723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 절터, 산소자리 적합
-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3억원

010-4835-1739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법당인등 1천불, 영가인등 1천불
- 100미터 지하석수, 실외 화장실 2개, 상수도, 5미터 도로, 심야보일러, 에어컨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 명학역 도보 10분
-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 약 55평(법당, 주방, 침실, 서재)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령1동211-164(62-2) (마산 제일 여고 뒤)
- 임야(자연녹지)1800평, 대지 60평, 전(땅)120평, 법당 20평, 요사채
- 가액 : 3억5천만원

010-8762-9870
010-9978-5453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 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6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금곡면
- 202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방5개, 화장실2개
- 자급자족 할수있는 텃밭 200평, 주변 주차공간 많음 진주시 10분거리
- 가액 : 2억5천만원

010-7661-4060

전망좋은 토굴(앞바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422-9
- 121평 법당, 삼존불, 산신각, 텃밭
- 가액 : 9천만원 보증금 5백만원, 월 20만원

010-8643-5235

사찰안내(현 운영중)

- 위치 : 경남 고성 26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3개
- 신도많음, 팔기 아까운 절
- 개인사정 급양도
- 가액 : 3억5천만원 (대출 5천만원 포함)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주소 : 창원시 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236-19
- 삼면이 멋진 바다 용궁사를 사정에 의해 양도, 양수합니다
- 건평 100평 1,2층, 대지 350평
- 전세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언제든지 입주 가능
- 한번 보시면 탄복합니다

010-4233-3459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사찰건물 전세 • 9층건물 6층 불교대학, 7층 대웅전, 각층 100평 최고시설 • 동삼존불, 대웅전50평, 산신각10평, 종무원20평, 스님접견실 20평, 샤워실 • 전세2억원 / 보증금5천만원 월150만원(시설비상담) • 주차장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700-1350
010-5883-225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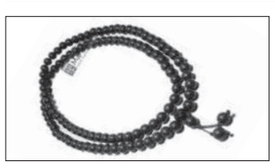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㉑ 보이차 열배 즐기기 1

숙차와 생차 구분법 먼저 알아야

한국의 약차에도 수백 종의 한방과 계절약차가 있듯이 중국에도 7대 명차 10대 다류가 있다. 그 가운데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차가 보이차이다. 그런 보이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마실 필요가 있다.

보이차(普爾茶)는 중국 윈난성 지역부터 티베트에 이르는 차마고도 지역에서 마시던 것으로 '흑차'로 불리었다. 보이차의 명칭은 차마고도 지역의 교역 거점 중 하나인 푸얼(보이)현이라는 마을에서 주로 거래되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후 보이차가 유명해지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이차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인 사모시를 아예 보이시로 개명해버린 역사가 있다.

원래 오래전부터 56개 소수민족 중 포랑족 하니족 등이 마시던 차였으나 청나라 옹정 황제 10년에 황실 진상품인 공차로 선정되면서 황제와 황후가 마시던 차로 널리 알려졌다. 청초의 몰락 이후 보이차는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다가 그저 그런 중국 변방에서 파는 차의 하나로 여겨지는 듯 했지만 1970년대 프랑스로 수출된 보이차 숙차의 효능이 논문을 통해 재발견되면서 다시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화려하게 비상하였다.



사실 보이차는 청나라 전성기를 거치며 청조 말기인 1900년대부터 차 시장에서 부활한 2000년대 초까지 100여 년간의 세월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차였다. 보이차의 전성기인 청나라시대에는 유락차산, 의방차산, 망치차산, 혁등차산, 이무정산, 만전차산 중국의 6대 차산을 중심으로 최고급 첫물차를 따서 보이에서 가공을 거친 후 당시의 수도인 북경으로 보내졌다. 6대 차산을 중심으로 채취한 최상급 찻잎은 기초가공이 끝난 모차 형태(산차)로 마방이나 손수레에 실려 보이현으로 운송되었고 그곳에 위치한 청나라 정부가 관할하는 보이차 가공공장에서 긴압차 등으로 가공되어 병차 전차 타차 등의 모양까지 갖추게 된다.

그런 다음 청나라 황실로 보내졌으며 행정 관청과 차 가공소가 몰려 있는 보이현에서 오랜 시간 명실상부한 보이차 가공 교역의 중심이 되어 보이차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되었다.

황제에게 바치는 공차를 위한 찻잎의 채취가 끝나면 이번에는 현지 관료와 세도가를 위한 차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를 관차라고 일컬었다.

이렇듯 관차의 재취가 끝나고 나서야 차는 일반백성에게 개방되었고, 중국 전역의 차 상인들이 몰려 청나라 정부가 세운 차 유통인의 인증서를 제출하고 그 인증서에 명시된 물량만큼의 세금을 내고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나라가 멸한 뒤 중화민국의 내전을 거쳐 공차창까지 망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다가 1949년 중국통일에 이르기까지 보이차는 약 40여 년간 커다란 변화와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해방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농업정상화 정책에 의해서 서쌍판납(시솽반나)를 중심으로 차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다원들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개량종 보이차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맹해차의 총생산량이 2750t이 넘어 단일 공장 생산량이 1920년대 전체 서쌍판납 생산물량을 초과한 엄청난 양이었다. 1972년 옛 중국차업공사가 중국토산축산진출공사의 차엽 독자경영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차 생산업자가 직접 차의 유통 수출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운남성의 보이차는 이 후 10여 년간 매년 1000t 전후의 보이차를 홍콩과 마카오에 100~200t 전후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중국토산축산진출공사 운남성차엽분공사는 다시 중국토산축산 운남차엽진출공사로 또 다시 개칭되어 본격적인 사회중의 사장경제체제로 운행되며 운남차엽진출공사의 수출독점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차 공장을 비롯해 기업 등이 직접 차를 수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2003년 전 후 기업사유화조치로 운남성의 거의 모든 공장이 주식회사 체제형태를 통해 민영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공장이 생겨서 현재 운남시에는 약 1000여 개의 차공장에서 보이차 녹차 홍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보이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백 가지 종류의 보이차를 이해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이차의 제조방법으로 인한 숙차와 생차 구분법을 먼저 알고 난 후 다시 보이차의 형태로 인한 일반적 분류법을 알게 되면 편리하다. 보이차는 제다방법에 따라 크게 생차(生茶), 숙차(熟茶)로 나뉜다. 구분의 기준은 차를 완성할 당시에 발효가 되었느냐 발효가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발효시키지 않은 찻잎으로 만든 차가 생차, 이미 열과 습기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차를 숙차라고 한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㉑ 미네랄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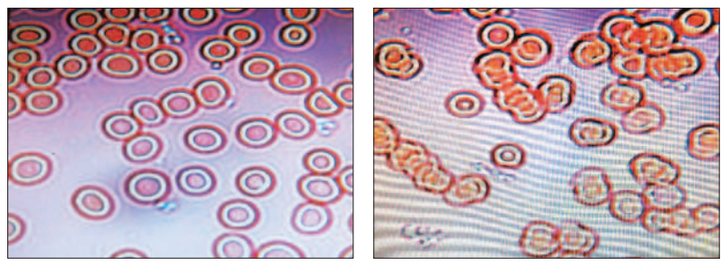
심근경색 예방, 소금과 물이 답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지인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60세도 안 된 사람인데 심장마비라니. 한동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불과 10개월 전에 만났을 때는 땅을 산 후 가족이 살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땅을 고르고 있었다. 무척이나 건강한 모습이었고 삶의 의욕이 넘쳤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요즘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0만 명을 넘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죽는 병이다. 심장근육이 죽으니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심근경색 초기 사망률은 30%로 사망자의 5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음에 이른다. 돌연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보면 된다.

심혈관 질환은 과거에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였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축소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름철에 오히려 환자 수가 더 많을 정도로 계절을 가리지를 않는다. 심근경색의 여름철 발생이 많아진 이유는 탈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그러면 혈액은 가지고 있던 수분을 땀에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혈액은 수분 부족으로 끈적끈적해진다. 이런 혈액은 혈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혈전은 관상동맥을 막아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증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혈구의 모습.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도 문제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땀을 흘리면 수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부로 혈액을 많이 보내려 한다. 이 경우 심장에 부하가 걸리게 된다.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일은 간단하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된다. 음식은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마시는 것은 미네랄 소금물을 마시고 과격한 운동이 아닌 적정 운동을 하면 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부족이 심해진다. 이때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맹물보다는 미네랄 소금을 물에 타서 옅은 미네랄 소금물을 만들어 마심으로써 미네랄과 소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수분이 공급되어야 혈액이 풍부해져서 피부에 수분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액부터 몸에 주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금물 공급을 통해 혈액을 풍부하게 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수분 부족은 여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겨울에도 난방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날씨가 차다고 해서 수분 섭취는 여름만 못한 경우가 많아서 수분 부족으로 연결이 이어지게 된다.

피부에서는 끊임없이 소금물이 빠져나가는데, 마시는 물은 맹물이면 그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몸에 소금물이 부족하면 신장에서는 소변으로 독소와 함께 나가야 할 소금과 물을 재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독소의 배출마저 힘들어지고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충분하게 땀과 소변으로 배출이 될 만큼의 수분을 공급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몸에 미네랄 균형이 깨어지고, 수분 균형이 깨어지고, 영양의 공급이 깨어지면 몸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이 세트로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소에 수분과 미네랄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몸 구석구석으로 물과 미네랄이 가지 못하고 피가 겉도는 현상, 걸쭉해지는 현상, 혈전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생활습관의 잘못은 어느 한 곳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를 함께 망가뜨린다.

수분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한다. 몸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에 관여한다. 눈에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 쉴 새 없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킨다. 침만 해도 하루에 나오는 양이 2L에 이른다. 코에서 나오는 콧물은 우리 몸의 코로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고 이물질을 걸러낸다. 혈액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신장에서는 수분과 미네랄을 배출하고 걸러 재사용을 한다. 체액, 림프액, 세포액, 세포간액 등 모든 곳에 수분이 자리하고 있고, 그 물속에는 소금이 함께 흐른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물을 매일 마셔야 하는 것이다.

심근경색은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사람에게서 쉽게 발생한다. 최근 들어서는 40대 젊은이들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은 생활습관병이다. 물과 소금을 멀리한 생활 습관병이다. 내 몸에 적정한 양의 물과 소금을 공급하는 일이 바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음식을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물을 먹는 습관, 소금을 먹는 습관이 나쁘면 병이 유발되고, 반면 좋으면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미네랄 소금물을 먹는 일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일이다. 수분만을 공급해서도 소금만을 공급해서도 안 된다. 미네랄 소금과 물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활습관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의 건강이 찾아온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❻ 상담하는 비구니의 생활

▶ 한줄 요약
나의 마음 복지가 타인의 마음복지다.

상담심리 최고 수혜자 '자기 자신'



나의 복지가 타인의 복지

상담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받는 동안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인 것 같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자신의 마음(의식, 내면)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상담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맑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이 맑은 상태여야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상담자는 교육분석으로 알려진 개인분석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련을 받는다. 내가 보기에 이 과정은 하나의 수행으로 보인다. 상담자 자신이 맑지 못하면 내담자를 비춰 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치료 효과가 나지 않거나 떨어진다.

대학생 때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전통적인 불교수행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상담과 심리치료 그리고 명상을 공부한 이유는 나의 복지(福祉 행복)가 먼저였다. 더불어 상담이라는 도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선택을 신뢰하고 이 일을 사랑한다.

내가 출가할 때 세웠던 서원 중 하나는 복지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타인을 위한 사회사업 정도로 생각해서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고 박사과정에 다닐 때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심리적인 면이나 의식의 상태가 편안한 것이 복지 같다. 그리고 '나의 복지가 타인의 복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통찰이 생겼다.

자신이 고통의 상태에 있으면서 타인을 돕는다면, 도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식 상태는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괴로운 상태에 있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고요한 상태로 변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편안해야 타인을 대할 때도 편안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신의 복지와 타인의 복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돈만 밝히는 스님

2018년 8월 어느 날의 이야기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스님이 사시(오전 10시) 예불을 하루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신에게 다급한 일이 생겨 부탁하는 거라며, 내가 상담 시간을 조정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랐다.

"나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했다. 하나는 오전에 있는 두 건의 상담 시간을 조정해야 했고, 다른 하나는 출근 시간을 고려해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좋은 스님이기를 원했다. 스님한테 이런 부탁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었다. 다행히 상담은 오후로 조정할 수 있었고 평상시라면 일어나지 못했을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기도 시간을 맞추었다.

나는 이 부탁을 받고 거의 자동적으로 '보시금은 얼마나 될가!'를 생각했다. '나라면 얼마를 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돈 받을 생각부터 할까!' 하는 한편, 창피한 마음과 더불어 살짝 기대감을 가졌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종무소 직원이 주는 보시금 봉투를 확인하고, 나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내 가치가 너무 낮게 측정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여러 사찰에서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적은 액수의 보시금이었다. 당황스러움과 더불어 서운했다. 서운함을 그대로 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기가 불편해서 '이제 스님 절에서 부르면 바쁘다고 하고 가지 말자' 라고 자신과 타협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스님이 비슷한 요청을 해왔을 때, 나는 '시간이 안 된다' 며 거절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화 통화에서 스님이 내 감정이나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할 때, 나는 '아니오' 라고 부정하고 있었다.

"스님 목소리가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스님, 괜찮아요."

이때 나는 내 기분도 느낄 수 있었고, '부정'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릴 수 있었으나 멈춰지지 않았다. 나를 낮은 보시금으로 측정한 것 같아 서운했고, 내가 가치를 돈으로 측정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부끄러웠다. 무엇보다 '돈만 밝히는 스님!' 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 그 일을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내면의 진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고백하지 못했다.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그동안 나는 인도 명상 아카데미에 두어 번 더 다녀왔다.

2019년 12월, 인도에서 갑자기 구안와사(얼굴 신경마비 증상)가 왔다. 현지 의사는 심각하지 않으니 귀국하고 3개월 정도 치료하라며 비타민을 처방해 주었다. 나는 그 상태로 1주일 동안 더 명상에 참여했다. 귀국하고 한참이 지나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동네 병원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 때마침 기도를 부탁했던 그 스님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알아봐 주었다. 우리는 2019년 12월 마지막 날 병원에서 만났다. 스님은 내 건강이 걱정된다며 병원까지 나왔다. 나는 이날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상담자의 내면 밝히기 위해
맑은 상태 유지에 노력 경주
상담 통해 부정적 감정 차단

나는 돈만 밝히는 스님이 안 돼야지!

어머니는 큰 사찰의 산내암자에 다녔다. 아들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구박받고 소박을 맞을 뻔했던 어머니는 아들 낳는 비법(?)을 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집에서부터 쌀 한말(열 쇠)을 이고 암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서, 그 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하면 득남한다는 이야기였다. 요즘과 그때의 쌀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집에서 암자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였다. 한겨울이었지만 어머니가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땀으로 온몸이 젖을 정도였다고 한다. '힘들었겠다' 는 짧은 문장으로는 그 고생을 다 담아 낼 수 없을 정도이다.

어머니의 정성에 감응해서였을까? 그 기도 후 3대 독자인 오빠를 얻었다. 어머니에게 그 암자는 평생의 의지처이자 영험 있는 곳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설날이면 온 가족이 방문했을 정도로 특별한 곳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암자로 향했던 꼬불꼬불한 오솔길에는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날도 어머니는 쌀을 준비해서 기도하러 갔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암주(암자의 주지스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시골사람인데다 일자 무식꾼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기도하러 왔다고 알렸을 때,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암주스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란 것이다. 암주스님이 향한 곳은 대도시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온 구두 신은 예쁜 보살님 앞이었기 때문이다.

암주스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암자에 다니는 횟수를 줄였다. 기도할 때가 되어 암자에서 안내 우편이 날아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잠시 갈등하셨다. 기도를 올리기는 해야겠는데, 가난한 시골사람이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고 싶진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는 그 일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아들 며느리를 봤으니 이제부터는 가들~보고 다니라고 하면 안되겠나?"라고 물어왔다.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러면 되지"라고 동의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나는 돈만 밝히는 스님이 안 돼야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만 밝히는 스님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병원 앞 한 카페에서 나는 스님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경험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스님은 내가 은사스님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학업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돈이 필요했었을 것이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나는 돈만 밝히는 스님이고 싶진 않았다.스님은 당신과 종무소 직원 사이에 사인이 맞지 않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갖고 있던 돈을 건넸다. 돈을 받기 위해 꺼낸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결국 나는 ' 돈만 밝히는 스님' 모양새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확인하며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내면의 진실을 보면 내면의 수다가 조용해집니다. 내면의 진실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상태에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나-의식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되면 나-의식이 녹았다. 내면의 진실의 상태를 보았더니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상담을 통해 내면의 불안과 분노, 두려움 등 부정적인 것과 접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감정' 이라는 단어로 명명할 줄 몰랐다. 그런데도 이전에 비해 편안해 진 것이 사실이었다.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부정적인 감정과 접촉하고, 그것이 '감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명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에서 명상을 한 뒤부터였다. 치유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 내면의 깊은 불안과 분노, 두려움의 뿌리에 가닿을 수 있었고, 그것을 경험할 안정화 되어 갔으며 신뢰감이 튼튼해졌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과 더 깊이 접촉할수록, 다른 사람이 더 잘 이해되었고, 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담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상담관계에 집중이 잘 되었다. 그들의 고통에 더 가까이 가 닿아도 힘들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과 접촉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바쁜 일상에서도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마음이 콩밭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감정이나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감정은 의식에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는 "감정은 영향을 받지만,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몸에서 느끼고(재경험하고), 그것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저항하지않고 허용해야 한다."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불교 상용의식집을 소개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漢文/한글(겸용)불교 상용의식집을 편찬한 성묵스님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신앙생활이 바뀌듯 경전도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한글을 보유한 민족으로 그동안 한문경전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알기쉬운 우리말 경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말)예경/각청・수계/방생편(11)권과...천도/시식・장의편(12권)을 통합하여 2권으로 축소 편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곳 TEL. 054-974-1345 HP. 010-1744-7339 (총무)

아울러 함께 창종 발기인으로 종단을 시작하실 대덕스님들을 모십니다.
이미 종단은 2020년에 허가와 종단협회 가입까지는 완료됐으나 코로나 관계로 중단되어 다시 출발하려고 하오며, 현재 종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함께 하실 뜻이 있으신 대덕스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연락주시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 010-5277-8024 (성묵 스님)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SINCE 2002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대행 스님

부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몸이라는 싹 때문에 자기 종성(種性)을 모르고, 즉 종자란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싹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항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더 많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이 모두가 겹쳐서 참, 사는 게 뭣인가 하고 허망한 생각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따지고 볼 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안다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오분향을 말했지만, 오분향은 오계의 근본적인 공부하는 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 예불에 이 오분향을 스님네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또,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오분향을 다 아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해마다 받는 오계의 의미도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기 이전에 지혜로우면 껑충껑충 점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며, 남편의 행동을 하며, 아들의 행동을 하며, 형의 행동을 하며, 아우의 행동을 하며, 사위의 행동을 하며, 친구의 행동을 하며, 사원의 행동을 하며 여러 가지를 자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듯이 부처님 법에 요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만나고 말하고 듣고 보고 이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스럽죠?

그런데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콩을 심어서 콩 싹이 났는데 콩 싹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인 줄 안다 이런 거죠. 엄연히 자기 종자가 있어서 콩 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아, 콩씨가 없어도 콩 싹이 없고 콩 싹이 없어도 콩씨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요거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둥글려서 말을 하려니까, 둥글려서 천체 나가려니까, 이것저것, 소소한 것, 뭐든지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게끔 항상 말을 하죠.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오계니 그런 게 모두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는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길을 걷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물은 강하면서도 유유히 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유유한 게 아니죠? 시대를 우리가 좇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좇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죽거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는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주인은 우리 마음이죠.

지구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 '삼천대천' 이렇습니다. '삼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삼천이랬나 하고 말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포함한 것을 삼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요거는 한 개체만 보는 견해에서 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본다면 '삼천'이라고 하죠. 이것을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세간이 어떻게 돼서 일심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삼세간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 내에 하세계, 중세계, 상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삼세계가 여기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세간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면, '삼천' 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마음을 '천'이라고 합니다. 또 '대천' 이렵니다, 대천! '삼천대천'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마음과 저 외부의 한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간, 대천세계와 더불어 같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 하는 것이, 삼천은 벌써 돌아가고, 삼천이 대천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삼천' 하면, 삼천이라고 한 말은 금방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현실로, 그냥 대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라.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남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이 천체와 다 같이 돌아가니 이건 무슨 까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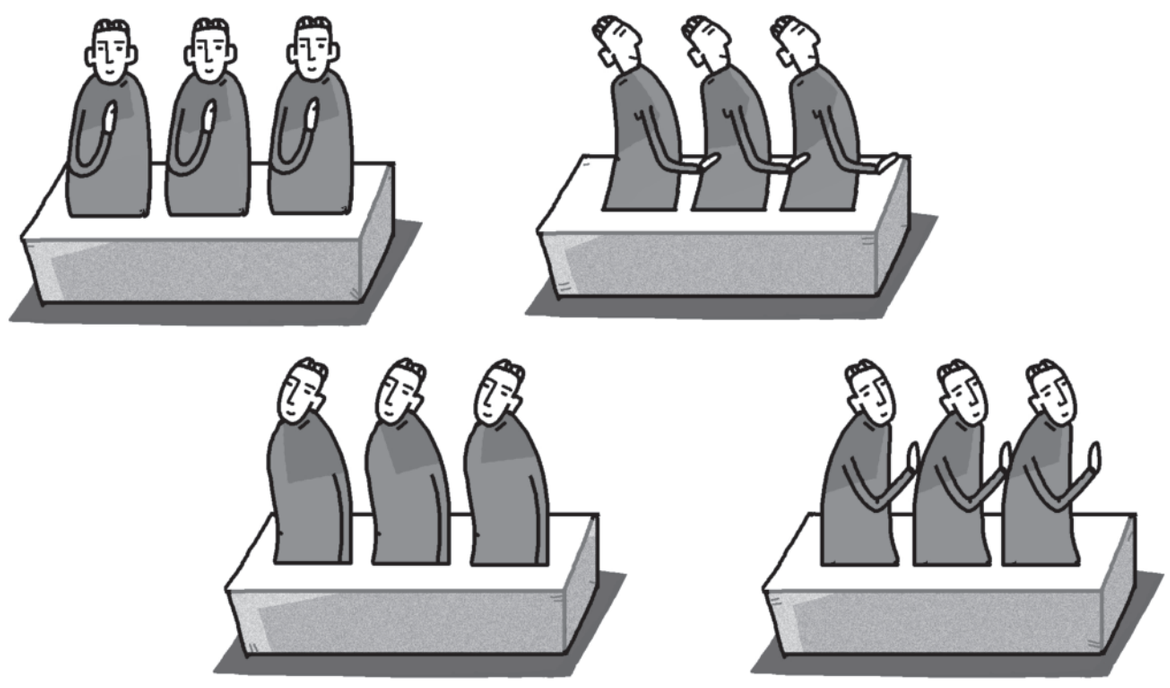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죽어 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업식에 의해서, 즉 남의 다리 긁어 가면서 살거든요. 허허허. 그런 경우가 많죠. 남이 이럭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흔들리면 나도 저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말도 없이 그냥 천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이 없이 그냥 남의 다리 긁어 주면서 가는 거죠. 자기 다리를 시원하게 긁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삼천대천' 이럴 때, 삼심이 일심이면 그 대천과 지금 현실의 삼천이 둘이 아닌 까닭에 내 한마음에 응집이 되고 한마음에 정심(定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분향을 얘기할 때에 '누구든지 함이 없이 해라'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상이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이 없이 주되, 아주 똑바로, 똑부러지게 해 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이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깨달은 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함이 없이 무주상 보시 하라' 이런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70년경에,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저기 조그만 가겟집 하나뿐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였었구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양주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도선생이 오실 테니까 저 문 좀 단속해라." 이러곤 무심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변소 문에 이렇게 망을 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망 쳐 놓은 것을 뜯고선 그리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야 사람이나 몇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밤중이 되면은 할 양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집어갈 거나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사람들 놀라겠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지하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빨리 나와." 문을 열어 놓고 말입니다. "빨리 나와. 아, 빚을 준 게 있으면 대낮에 받으러 오지, 어찌 이렇게 밤중에 와서 남 놀라게끔 만들어?" 이러면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픽픽 웃는 소리가 나요, 허허허. 웃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젊은 애가 신발을 벗어 들고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법에 이런 게 있다. 네가 뭐를 훔치러 왔어도, 가져가게 돼서 가져갔으면 바로 빚 받을 게 있어서 네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빚을 받으러 왔으면, 떳떳하게 앞문으로 들어와서 '나 빚 받으러 왔소.' 하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스님, 나 이런 게 이렇게 힘드니까 쌀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하든지 아, 그러면 내가 안 줄 사람이 아니야. 있으면 다 털어 줄 사람이야. 빚 갚는데 무슨 이유가 붙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참이나 있더니 그래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병이 나서, 상당히 급하게 생겨서…,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하하. "아, 더더욱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좀 줘서 보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삼백 정도 되게요.

왜 그랬느냐 하면 도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 22면으로 계속



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하라

☞ 21면에서 계속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어리석으니까 저지르는 거지, 사람 본래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강도든 아니든, 도둑이든 아니든,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본성은 다 평등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환경에 쪼달리고, 바람에 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다리를 긁게 되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훔치러도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모자라게 하더라도 듣는 건 잘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분향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오계도 거기 포함돼 들어가니까, 못났든 잘났든 모두가 자기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고, 사느라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없죠? 따따부따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분향은 처음에 공부할 때에 이렇게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쳤단 얘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해라.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안 그럴까요? 허공에다가 돌을 친다고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돌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탓으로 인해서 상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대로 인해서 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첫째,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에게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안과 바깥의 모든 걸 다 모아라 이거야. 모으는 작업을 해라. 정(定)에다 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계향이에요.

정향이라 하는 것은 한군데다 모아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익어진 것을. 아, 이제는 내 주장자가 엄연히, 딱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게끔 됐을 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향!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는 그 정향 속에서 들이고 내는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이고 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써 여여하게 하니까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것이 모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줄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향에서 들이고 내는데 완전히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혜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혜향! 지혜 혜 자, 혜향.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오면서 느끼고 배운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아하,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하구요. 하하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는 많고도 많더군요. 전부 그냥, 전부 부처예요. '전부 주인공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여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얘기할까요? 심령을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죠? 그죠? 이 허공에 꽉 찬 마음을 다 꺼낸대도 줄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등공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하는 혜향이 있습니다. 그 혜향이 이제 완성되면, 이게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그 속에 지금 오계로 받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에다 돌을 친다고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돌이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익어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해탈향이 나옵니다. 그땐 뭐냐 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같이 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것들 전체를 그저 보는 대로 무명을 거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거둬 주는 게 아니라 일체 선명하게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져서 그 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화를 해라,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니는 거를 중학교로 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걸 첨단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가게끔 무명을 전부 벗겨 주는 것입니다. 묶여진 마음을 다 헤쳐 주는 것입니다. 무명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생명들을 다 그냥 풀어 주는 거죠. 그거를 풀어 주게 되면 자기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몇천 년 그냥 가도,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거 말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해탈향' 이럽니다. '더불어 같이 묶인 무명을 풀어 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풀어 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해탈지견향', 이것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길 하면 또 복잡해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요. '해탈지견향'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으므로 일체 부처하고도 둘 아니고, 일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어져서 펴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수만으로도 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구경 도리천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번에, 한 생각에, 찰나에 돌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또 같이할 수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게 없고, 지장, 아촉, 아미타, 미륵, 칠성, 관세음, 지신, 용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을 때 해탈지견향입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름 아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아닌 이름! 그래서 한울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은, 도리천을 큰 바다라고 하면 이 바다 가운데서 그냥 인정을 한다, 인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냥 잔등이에, 이 몸 아닌 몸 잔등이에 그냥 처-억 (주먹으로 손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하시며) 인가를 받죠. 이렇게 인가받은 도장이 바로 법륜 마크나 만(卍)자 이런 것입니다. 그게 한만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중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상세계도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중세계에서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러한 공부가 돼서 진짜로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대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으려면 벗고 말려면 말고, 금방 옷을 여기다 벗어 놓고선 그냥 가서 또 자유스럽게 이 옷을 입을래도 입고, 저 옷을 입을래도 입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6 · 25때 말입니다. 접시비행기라는 말 들어 보셨죠?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접시 모양뿐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움죽거리는지 보셨습니까? 난 그때에 나이가 어렸지만 말입니다, 한 스물서넛 이렇게 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떴는데 그 하나에서 줄을 지어서 나와요. 지금이 아니라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죠.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건 마음의 자유로구나. 모습을 이걸로도 하고 저걸로도 할 수 있으니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오게 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서 응신으로 돼 준다고 하신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생각에 보살들을 헤아릴 수 없이 낳아서, 원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하나로 응신이 돼 주신다고 그러셨죠. 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한쪽에는 문수보살, 한쪽에는 보현보살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움죽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현신이 되거든요. 그것은 보현신이 되기 이전에 한 찰나에 화신으로 화해서 보현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신이 바로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게 없어요. 남이 대신 살아 주면서 대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러더라도 똥 누는 거 대신 눠 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죽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대신해 줄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틋하고, 자기가 앵하고, 자기가 괴로운 거를 그냥 '거기서 또 나오는구나! 하하, 나 공부시키느라고 참 잘 나온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어. 내일은 생각지도 않아. 그저 오늘 모든 걸…, 너를 믿으니까, 다 네 몸이니까, 그리고 네가 끌고 다니니까,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해서 믿고 놓는 거죠.

그런데 대치를 해서 바꿔 놔야만이 바꿔져서 나오지, '너 할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놓으면 아무것도 입력되는 게 없어요. '너 할 대로 해라.' 그것만 입력이 되는 거죠. 음식을 하더라도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고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맞지 않으면 덤덤하고 맛이 없죠,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도 간이 맞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인생이 간이 맞게 태어나면 간이 맞게 살거든요. 넘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말입니다.

난 그래서요, 옷 한 가지가 더 들어오면 거북해요. 거북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착이죠. 허나 번뇌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번뇌 아닌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전부가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번뇌지, 그것이 도를 이루어 나가는 도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아서만 한다면 여여하게, 그냥 참 가지런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세계에서 한번 이런 공부를 해서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그래서 '한 생 좀 어려우면 어떻고 한 생 좀 고달프면 어떠냐.' 하는 거죠. 어저께도 합창단 후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구나.' 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하, 좀 고달프면 어떠냐. 더불어 같이 고달펐지 여러분만 고달프라고 한 거는 아니잖느냐.'

자나 깨나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리만큼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는 피가 흐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다웁게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세계의 자유인이 된다면, 마음으로써 마음껏 건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분향만 잘 알면 오계를 받은 뜻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분향을 알면 오계는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2월 3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 현불논단 |

이태원 참사와 共業



방영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울리히 벡은 저서 '위험사회'에서
"발전되면 위험사회 될 것" 경고
現 위험은 '생산된 위험'란 의미
이태원 참사 역시 '생산된 참사'

업보, 불공업과 공업으로 구분돼
불공업-개인윤리 공업-사회윤리
불공업과 공업, 상호연기적 관계
붓다 설한 사회윤리적 고민 필요

이태원 참사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의 회오리에 몰아넣었다.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그 트라우마의 상처는 오래갈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지은 〈위험 사회(Risk Society)〉가 생각난다. 울리히 벡은 한국불교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고,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하여 '무애' 라는 법명을 가지기도 했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며, 그 위험은 지역과 계층과 관계없이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의 위험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된 위험' 이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바로 생산된 참사이다. 지금 지구촌의 문명은 세계화의 틀에서 하나가 되고 있고, 하나의 중심은 서구 문명이다. '핼러윈' 이라는 서양 무속의 축제가 우리나라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필자는 '라떼 시대' 의 사람이고 한국 젊은이의 좌절과 외로움에 둔감한 것이 리라.

이태원 참사는 이 시대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짊어질 공업(共業)이라고 생각한다. 윤회와 업 사상은 불교 윤리의 제일 기본적인 토대이다. 윤회와 업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윤회의 핵심동력이 바로 업이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에 의해 형성된 업의 소멸에 있다.

업은 불공업(不共業)과 공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불공업이란 자신이 행한 행위의 과보는 그 개인이 받는 것이며, 공업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받는 업이다. 공업은 아비달마를 집대성한 〈구사론〉과 〈화엄경〉 등에 등장한다.

불공업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즉 개인 의지와 결단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가치관 정립과 실천에 관심을 둔다.

반면, 공업은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여기서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사회윤리적 과제가 제기된다. 불공업과 공업,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서로 연기적 관계에 있다. 그 연기적 양상은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여러 측면에서 표출되고 있다. 관련 공직자에 대한 과실치사, 업무 태만, 은폐조작 등 다양한 죄목이 거론되고 있다. 언뜻 보면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질책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그 심층을 보면 공업의 성격이 크다. 비도덕적 사회구조가 비도덕적 인간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사회구조의 개념 속에서는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과 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이를 '관행적 규율체계' 로서 사회윤리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관행 체계와 문화가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가를 체감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개인의 선한 업을 강조하는 개인 윤리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깨달음의 사회화'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수많은 사회적 고통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무명을 밝히고 극복해 가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선한 공업을 짓느냐의 과제로 연결된다.

불교는 단순한 신앙체계나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이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불교가 지향할 사회윤리적 가치에 대해 진지한 고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진치 삼독의 극복은 개인의 수행 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전체 사회의 수행 과제이다.

社 說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개원에 부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첫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 을 봉행하고 제226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서는 5선의원인 주경 스님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수석 · 차석부의장에는 무관 스님과 법원(직할)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장과 위원 등을 선출 · 배정하며 원 구성을 마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회로 따지면 '국회' 와 같다. 즉, 종헌 종법을 만드는 '입법기구' 이면서 총무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적 장치다. '입법기구' 로서 제18대 중앙종회가 해야 할 일은 명증하다. 종법 미비사항들을 정비하고 종도들이 원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야 한다.

나아가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창의적 의정활동도 요구된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개원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합을 으뜸으로 하며,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합의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며 "비록 화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도 소통 · 협의해 종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해 종단 발전의 초석을 놓길 바란다"고 설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법어는 제18대 중앙종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제18대 중앙종회가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을 이끌기를 바란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견제기구로서 역할도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상월결사 원력, 불교중흥 이어지길

2019년 11월 11일, 아파트 공사현장에 비닐 천막을 친 아홉 스님은 목숨을 건 정진을 시작했다.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대발원이었다. 이러한 상월결사가 3년을 맞았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는 수미산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바세계 한복판이 그곳이라는 일대 선언이었다.

상월결사는 이러한 정신 하에 '불교중흥' 의 대장정을 걸었다. 이와 함께 '국난극복' '세계평화' 라는 사회적 운동까지 전개됐다.

순례에는 108명의 순례단이 한마음이었다. 여기에 순례 현장에서는 전국사찰에서의 성원이 이어졌다. 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박수와 격려가 쏟아졌다.

비가 오면 따뜻한 물과 음료를 챙겨 나온 주민들, 마을회관을 선뜻내 준 농민들, 이 모두가 불교 중흥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불자들은 불교중흥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본격화된 '평화방생순례' 는 불교가 생동하는 종교로 한걸음 나가아는 모습을 보였다.

순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현장에서의 정진은 수행의 일환이지만 순례 이후에 던져진 메시지는 지중하다. 높게 들어올려진 상월결사의 기치는 계속해서 사회에 펼쳐져 있다.

상월결사 3주년을 맞아 이제는 불교혁신을 위해 다시 스스로 돌아볼 때다. 상월결사 정신을 곳곳에 펼쳐 적극적인 전법 포교행에 나서야 한다. 불교가 살아 숨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국화차 선물

마른 국화꽃이 뜨거운 찻물에 활짝 피어난다. 노란 국화차에 늦가을이 내려앉는다. 짧은 햇살을 아쉬워하는 풀벌레 소리도 녹아내린다. 은은한 차향에서 말수가 적었던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마른 국화처럼 마음이 메마르면 나의 집을 찾아오곤 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입대하기 전에는 병영에서 자투리 시간에 읽을 책들의 목록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군대로 떠나면서 나에게 국화차를 선물했다.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선물은 단순히 물건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무슨 선물을 좋아할지, 가격이 비싸 뇌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한다. 선물을 보낼 때는 가격표를 떼고, 예쁘게 포장해서 정성을 기울인다. 선물을 받은 사람도 가격을 따지지 않고 선물 속에 담긴 마음을 받는다.

혹시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를 해야겠다는 의무가 따른다거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돌아올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교환이 되고 만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순수한 선물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정말 순수한 선물은 불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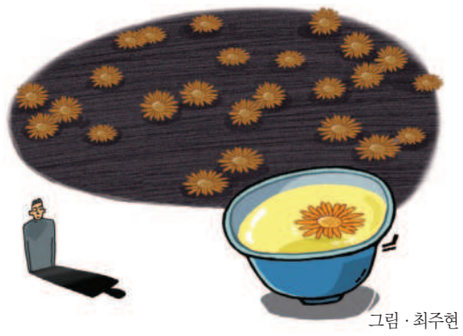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금강경〉은 '머문 바 없이 보시하라(應無所住 行於布施)' 고 설한다. 보시를 하는 자신에게 그로 인한 보답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 그렇기에 받는 이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교환으로 이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선물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라는 문구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선물에는 재능이나 지식으로 봉사하는 비가시적인 선물이 있다. 불법(佛法)을 가르치는 스님은 선물한다는 생각 없이 설법하고, 듣는 사람도 선물이란 생각 없이 그저 듣고 배운다. 인간에게 존재의 근원을 깨닫도록 하는 이 법시(法施)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으랴.

무외시(無畏施)라는 보시도 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을 준다는 것은 기쁨이나 편안함을 주는 것을 뜻한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공연히 불안하고 불편해진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거워진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준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받았다는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다. 존재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이다. 이런 무주상보시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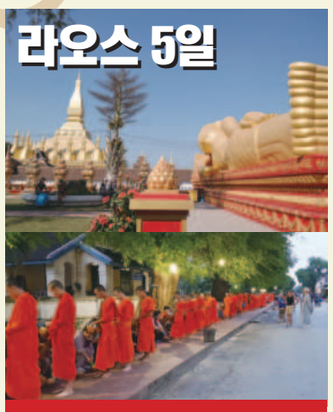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 유쾌하고 즐겁다!"

이제 불교국가 모두순례가 가능합니다.



₩ 1,590,000~

순례지
인천-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비엔티엔-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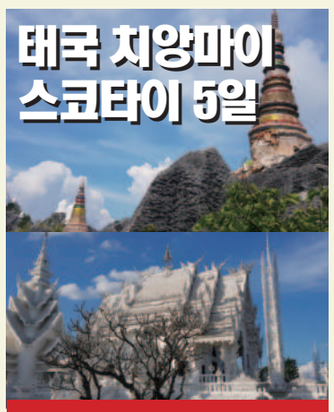
출발일
12/3, 12/20, 2/16



₩ 1,690,000~

순례지
인천-하노이-하롱베이-씨엠립 앙코르와트하노이-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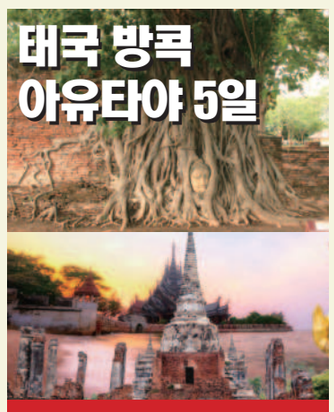
출발일
12/14, 2/1, 2/10



₩ 1,590,000~

순례지
인천-치앙마이-스코타이-인천

출발일
11/22, 11/29, 12/9, 12/16, 1/13, 2/17



₩ 1,590,000~

순례지
인천-방콕-아유타야-방콕-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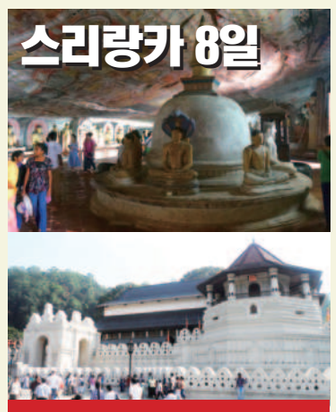
출발일
11/22, 11/29, 12/13, 1/15, 2/13



₩ 1,990,000~

순례지
인천-타이페이-불광사-인천

출발일
2/16, 2/21, 4/18



₩ 2,690,000~

순례지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켈라니아-콜롬보-인천

출발일
11/28, 12/12, 1/9, 2/15, 2/22



₩ 1,890,000~

순례지
인천-자카르타 족자르타-보르부두르 발리-인천

출발일
11/22, 12/1, 12/15, 1/10, 2/13, 3/1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5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3년 2월 9일(목) 동참금 : ₩ 3,990,000

주요일정

1일 인천-델리
2일 델리-국내선 아우랑가바드-엘로라석굴
3일 아잔타석굴-인도르
4일 인도르-보팔-싼치대탑-아그라
5일 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럭나우
6일 럭나우-바라나시-최초설법지 녹야원-박물관-항하사
7일 바라나시-부다가야-보리수-마하보디대답-수자타집터
8일 부다가야-라지기르-영축산-죽림정사-불교대학 나란다
9일 라지기르-바이샬리-진신사리탑-아난다사리탑-아쇼카석주-케사리아대탑-쿠시나가르
10일 쿠시나가르-열반지-사리탑-다비탑-쉬라바스티
11일 쉬라바스티-금강경설법지 기원정사-천불화현터-앙굴리말라집터-룸비니
12일 룸비니-포카라-페와호수-데비폭포
13일 포카라-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사원-보드나트
14일 카트만두-델리 15일 인천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